



우수콘텐츠잡지  
2023

#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2026 **2**  
VOL.248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http://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 예감

2026년 2월-12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 2.4.(수)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 <와그직!!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 2.6.(금) 운사당: 정자경 가야금병창 아지트 <소리, 바다를 건너다>
- 2.11.(수) 해낙낙 <도니제티 오페라-사랑의 묘약>
- 3.9.(일) ~ 3.15.(일) 허종자 <지은 허종자 개인전>
- 3.23.(일) ~ 3.29.(일) 홍천호 <홍천호의 시간여행전>
- 4.20.(일) ~ 4.26.(일) 파티나 컨트리 <who loves old thing>
- 6.8.(일) ~ 6.14.(일) 나연희 <제27회 나연전>
- 6.22.(일) ~ 6.28.(일) 김덕용 <글뎌 김덕용 서예전>
- 7.13.(일) ~ 7.19.(일) 부산미술서예작가회 <부산 미술 서예작가회전>
- 7.27.(일) ~ 8.2.(일) 부산문인협회 시분과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 8.17.(일) ~ 8.23.(일) 부산예술건축문화회 <공간의 여정>
- 8.24.(일) ~ 8.30.(일)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 9.7.(일) ~ 9.13.(일) 이동욱 <이동욱 개인전-시선이 머문 자리>
- 11.4.(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사계>
- 11.11.(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부산, 바람의 시작>
- 11.18.(수) 부산아이디발레단 <렉처 퍼포먼스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 11.25.(수)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 12.2.(수) 이바디예술단 <술가락 젓가락 들고 떠나는 메구놀이(풍물) 맛 기행>
- 12.9.(수) 춤과사람 <추풍연(秋風宴)>
- 12.16.(수) 원기동 국악예술단 <사노라면-화류춘몽>

# 예술 아카데미

## 수강생 모집 중

###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선정가능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 수강기간

2026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4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4	즐거운 가야금교실	20명	수) 10:3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5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5:00-16: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10	가곡교실	20명	수) 13:00-14:3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11	부채춤교실	20명	화) 15:00-16:30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12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4개월 12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박재범 토크콘서트 오후 4시, 010-2392-7659	2 엘빙댄스(4중연습실) 10시-11시30분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시험 신진작가초대전 OT 오후 6시, 051)631-1377	3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중연습실) 15시-16시30분	4 문화가있는날 <음악과 함께하는 그림책 이야기> 오후 7시, 051)631-1377  너도나도방송댄스(4중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중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중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중연습실) 15시-16시30분	5 사진아카데미(초급반)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중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중연습실) 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 대학 051)632-5888	6 문화가있는날 <소리, 바다를 건너다> 오후 7시, 051)631-1377	7 부산국악협회 정기총회 오전 11시 051)644-5211
8 모멘텀아트 <가족뮤지컬 라퐁젤> 11시/13시30분/15시30분 010-2930-7325	9 엘빙댄스(4중연습실) 10시-11시30분	10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중연습실) 15시-16시30분	11 문화가있는날 <도나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오후 7시, 051)631-1377  너도나도방송댄스(4중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중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중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중연습실) 15시-16시30분	12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 오전 9시, 051)634-1295 사진아카데미(초급반)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중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중연습실) 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 대학 051)632-5888	13	14
15	16	17	18	19 사진아카데미(초급반)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중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중연습실) 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 대학 051)632-5888	20	21 헤이데이댄스아카데미 헤이데이콘서트Vol.3 오후 6시, 010-2243-2194
22 모멘텀아트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1시/13시30분/15시30분 010-2930-7325	23 엘빙댄스(4중연습실) 10시-11시30분	24 부산예총 정기총회 오후 5시, 051)612-1376  부산건축가회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도시건축모형전(3,4층 전 시장) 051)631-1377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평판노래교실(1층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교실(4중연습실) 15시-16시30분	25 부산건축가회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도시건축모형전(3,4층 전 시장) 051)631-1377  너도나도방송댄스(4중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교실(2중연습실) 10시30분-12시 가곡교실(2중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중연습실) 15시-16시30분	26 부산건축가회 제65차 정기총 회 오후 3시, 051)241-4011  부산건축가회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도시건축모형전(3,4층 전 시장) 051)631-1377  사진아카데미(초급반)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중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중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중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중연습실) 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 대학 051)632-5888	27 부산건축가회 2025굿바이메모리, 뉴비기닝 부산도시건축모형전(3,4층 전 시장) 051)631-1377  부산 남구 가정어린이집 연합 회 가정어린이집 웰레회 오후 6시 010-4546-3376	28 2026 예술렉처콘서트 시사진 강좌 오후 2시 051)631-1377



# ART BUSAN MONTHLY VOL.248

## 2026 FEBRUARY 2

### CONTENTS

#### 권두칼럼

08 예술문화로 소통하는 인류 ·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네트워크 \_ 이시영

#### 예서제서

- 10 부산예총 : 2026년 계획
- 12 202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예감: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 14 부산예술회관 기획 - 2026 희망을 노래하다 \_ 박준영
- 16 2025 굿바이메모리전 부산문인협회
- 17 사진아카데미 色時空색시공 세 번째 이야기
- 18 재미있는 도시 부산
- 20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 21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개관영화제
- 22 부산시립미술관 2026년 가을 재개관
- 23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 - 나의 집이 나
- 26 섬이 품어온 역사를 돌아 보다 - 부산의 보물섬, 영도
- 28 고은사진미술관 + 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 30 사제동행 프로젝트 VIII <춤-同舞同樂> \_ 정혜주
- 32 부산박물관×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교류기획전  
거장의 비밀: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



#### 표지\_김남진

·부산대 미술교육과, 독일 뒤셀도르프 콘스트아카데미 졸업  
·개인전 36회  
·기획전 및 단체전 250여 회  
·제17회 송해수미술상  
·제23회 봉생문화상(전시부문)  
·(사)부산미술협회 제5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

우주토키-CO RA\_나무패널 위에 안료 채색, 73×91cm, 2025



- 34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조개, かい: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
- 36 스크린과 무대에서 만난 위키드 \_ 박준영
- 39 폐교에서 길을 묻다: 폐교 활성화 <1> \_ 정달식

**포토에세이**

- 42 중앙아시아 3국을 가다 \_ 정명희

**수필의 뜰**

- 46 서랍 속의 노스텔지어 \_ 심선경

**인물포커스 I**

- 50 낙동아트센터 송필석 초대관장 \_ 정혜주

**인물포커스 II**

- 52 부산연극협회 이정남 회장 \_ 정혜주

**예술가열전 241**

- 54 서양화가 김양목 \_ 박준영

**손으로 쓴 문학**

- 58 파도에게:2 \_ 변종환

**들어다보기**

- 60 영화/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_ 김민우
- 62 연극/ '2025 부산연극 BEST 7' 선정 작품 \_ 김문홍
- 66 미술/ 메타버스Metaverse 그리고 다원예술 그룹 [단장] \_ 백근영

**기획연재**

- 68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6화 「경상도 아가씨」와 40계단 \_ 이용득
- 72 세상의窓 - 정보의 총아, '인공지능AI의 등'에 확실히 올라타자 \_ 심수화
- 76 예총-전사-공연 뉴스
- 81 신간 안내
-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2월 통권 248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6년 1월 26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혜주 편집기자\_ 박준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술문화로 소통하는 인류 ·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네트워크

글 \_ 이시영 (재)한국문화교류재단 이사장

문화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공기처럼 스며들고 퍼지며,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고 순환한다. 오래전 실크로드가 그러했다. 거대한 사막을 가로지른 그 길은 오아시스 왕국들을 거점 삼아, 낙타 등에 실린 물품과 사람, 그리고 사상과 예술을 함께 이동시켰다.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의 문화는 동양으로, 동양의 문화는 다시 세계로 확산됐다. 수천 년에 걸친 문명의 교류 속에서 유적과 유물은 세월 속에 흔적으로 남았고, 예술은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실크로드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인도와 서아시아, 지중해 문명권을 잇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제 무역 네트워크이자 '세계화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이 광범위한 교역망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기원전 130년경, 중국 한나라 무제 시기였다. 장건의 서역 파견을 계기로 공식적인 교통로가 개척되었고, 이를 통해 물자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종교와 사상이 활발히 교류되기 시작했다. 부유한 상인과 권력자들의 강력한 후원은 인도의 석굴사원과 서역의 불교미술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데 한몫했다. 실크로드의 발달은 곧 미술의 발전이었고, 불교문화는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지며 동아시아 문화권의 토대를 이루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 또한 문화 교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는 헬레니즘 미술이 깊게 스며들었고, 그리스 조각 양식과 불교 신앙이 결합한

---

간다라 미술은 다시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석굴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화는 이렇게 국경을 넘고 시대를 건너며, 서로 다른 문명 속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해 왔다.

동아시아 삼국인 한국·중국·일본 역시 오랜 세월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차 문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약 5천 년 전 중국에서 발견된 차는 당나라 시대 육우의 『다경』을 통해 체계화되었고,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로 확산됐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차 문화를 각자의 토양 위에서 토착화하며, 동아시아를 세계 차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는 문화가 단순한 전파를 넘어, 각 사회의 정체성과 감각 속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동시대성을 공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달로 예술과 문화는 공간의 제약과 시간차를 넘어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확산된다. 이 새로운 문화 네트워크는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엮어내며, 교류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문화는 이동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시에 만들어지고 함께 향유되는 경험이 되었다.

한국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계 캐나다인과 미국인 감독이 참여하고, 한국·미국·일본이 공동 제작한 작품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적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넘어선 협업은 예술과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한 교류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창작과 연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술문화는 이제 서로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협업의 언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문화의 공공적 소통 공간, 즉 문화공동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각국이 사려 깊은 문화외교 정책을 펼치고 상호교류를 이어갈 때,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시아적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2002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교류재단은 이러한 인식 아래,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국제 교류와 우호 협력을 통해 친선과 공동 번영을 도모해 왔다. 특히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과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며,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국가와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공동체와 다문화 사회가 일상이 된 오늘, 한국문화교류재단은 지구촌 평화와 상생을 향한 문화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애를 증진시키는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술문화로 소통하는 인류',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 부산예총 : 2026년 계획

부산의 사계절은 부산예총이 마련한 다채로운 예술 행사로 채워진다.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길목마다 예술의 잔치가 펼쳐진다. 2026년에도 부산의 예술인들은 변함없는 열정과 우수한 기량으로 무대에 올라, 예술의 도시 부산의 중심에 당당히 선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는 건축·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음악·꽃작가·차문화 등 11개 단위 협회와 함께, 붉은 말처럼 한 해의 시간을 씩 없이 가로지르며 부산 예술의 내일을 연다.

/ 편집실

## 2026 문화가 있는 날: 예감

‘문화가 있는 날: 예감’은 공연·전시·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월부터 12월까지 부산예술회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클래식·국악·무용·미술 등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전시와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는 공연장 공사로 일정이 조정돼 관람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 확인이 필요하다.

을 보다 깊이 있게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사협 신진작가초대전’에서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2026 예술렉처콘서트 AI 사진 강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예술활동·예술산업·예술교육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조망하는 강연이 2월 28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연은 AI 포토 저널리즘 및 AI 이미지 산업 연구·교육자로 활동 중인 오승환이 맡는다. 사진의 본질과 AI 이미지의 철학적 연속성부터 저작권·윤리·법적 쟁점, AI 기반 사진 산업과 미래 일자리까지 폭넓게 다룬다.

## 2025 굿바이메모리 뉴 비기닝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부산건축가회와 부산사진작가회가 참여한다. 부산건축가회의 ‘부산도시건축모형전’은 ‘일상을 품은 건축’을 주제로 부산의 도시 건축



###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점심버스킹 IN MADANG'**

부산예술회관 야외마당 무대에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문화를 만날 수 있는 버스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4월 사이 약 한 달간 매주 1~2회, 다양한 공연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다양한 예술 체험을 통해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사다. 부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전시·경연대회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부산예술회관·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2026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부산예총이 주최하고 11개 단위 협회를 비롯한 부산 지역 우수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이다. 싱그러운 5월 부산시민공원 다솜잔디광장에서 공연·전시·예술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틀간 펼쳐진다.

### **제15회 젊음의 축제**

부산의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로 가요부터 스트릿댄스까지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청년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예술문화 조성을 이끈다.

### **제64회 부산예술제**

부산예총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 온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 예술제로, 10월 한 달간 부산예술회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부산시청 전시실 등 부산 전역에서 열린다. 부산예총 산하 11개 단위 협회의 장르별 예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제63회 부산예술제 개막식

다. '예술인의 밤'에서는 부산예술상과 예술문화공로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 **2026 예술의 흔적**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원로 예술가들을 위한 행사로, 영상과 대담을 통해 부산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안을 공유한다. 인터뷰는 영상과 출판물로 기록·보관되며, 부산의 원로 예술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 **예술아카데미**

부산예술회관에서는 부산 예술가들의 지도로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팡팡노래교실, 한국무용, 가야금, 아랑고교장구,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웰빙댄스, 방송댄스, 가곡교실, 부채춤교실, 사진아카데미 등 총 12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202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예감: 예술로 감성을 건하다

부산예술회관의 기획 프로그램 <예감>은 2026년 한 해 동안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과 예술의 접점을 넓힌다. 클래식·국악·무용·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월별로 이어지며, 예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해낙낙

### ▶ 2.4.(수) 오후 7시 와그작!!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 음악하

#### 는 사람들 Music in

그림책 이야기와 클래식 음악이 함께 펼쳐지는 가족 음악 콘서트이다. 내레이션과 라이브 연주, 그리고 장면마다 어울리는 음악과 소리가 더해져 동물들의 달빛 아래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든다.

### ▶ 2.6.(금) 오후 7시 소리, 바다를 건너다 | 운사당: 정자경 가야금병창 아지트

바다라는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주제로 전통가야금병창의 진정성과 퓨전 국악이 적절하게 만나는 지점을 선사한다.

### ▶ 2.11.(수) 오후 7시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 해낙낙

순수한 시골청년 네모리노와 아디나의 사랑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풀어낸다. 사랑이 신비한 묘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비롯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 3.9.(월) ~ 15.(일) 지은 허종자 개인전 | 허종자

지은 허종자의 작품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사색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제공하며,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조용히 건넨다.

### ▶ 3.23.(월) ~ 29.(일) 홍찬효의 시간여행 | 홍찬효

오랜 시간 '시간여행'을 주제로 작업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찰나의 순간부터 축적된 시간의 흔적까지를 하나의 여행으로 풀어내며 시간의 흐름과 기억을 도자 조형으로 표현한다.

### ▶ 4.20.(월) ~ 26.(일) who loves old thing | 파티나 컨트리

전통적인 제화 과정과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가족의 표정, 그리고 사라져가는 기법으로 완성된 오브제들을 통해 '잘남음'의 의미와 수제화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조명한다.

▶6.8.(월) ~ 14.(일) 제27회 나연전 | 나연회

한국화의 근간인 '墨(묵)'에 빛, 미디어, 혼합매체 등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접목한 실험적 작업을 통해, 전통과 동시대 조형 언어가 만나는 새로운 한국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6.22.(월) ~ 28.(일) 글씨 김덕용 서예전 | 김덕용

작가는 소가 되새김질하듯 옛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創新(창신)을 추구하고, 그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러한 태도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7.13.(월) ~ 19.(일) 부산미술서예작가회전 | 부산미술서예작가회

한글·한문·전각 등 다양한 서체와 표현 방식을 통해 서예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필선에 담긴 운필과 호흡, 시간의 깊이를 관람객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7.27.(월) ~ 8.2.(일)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문인들의 시화전을 통해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감성적 공간을 조성한다. 내면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문학적 감수성의 확장을 도모한다.

▶8.17.(월) ~ 23.(일) 공간의 여정 | 부산예술건축문화회

부산건축가회 회원과 건축에 관심 있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모임의 전시이다. 건축가의 생각이 디자인으로 구체화되는 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건축이 만들어지는 시간과 사고의 흐름을 관람객과 공유한다.

▶8.24.(월) ~ 30.(일)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투명한 물빛으로 그려진 인물들의 얼굴과 그 안에 담긴 각양각색의 마음과 이야기를 통해, 감성적인 인물화 작품을 선보인다.

▶9.7.(월) ~ 13.(일) 시선이 머문 자리 | 이동욱

작품에 담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통해 관람객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다.

▶11.4.(수) 오후 7시 세계 |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한국의 사계절을 가곡으로 풍성하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선율로 감동을 전한다.

▶11.11.(수) 오후 7시 부산, 바람의 시작 |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새로운 바람과 발전의 도약을 이루는 부산의 위상에 발맞추어, 관악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도모한다.

▶11.18.(수) 오후 7시 렉처 퍼포먼스 발레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 부산아이디발레단

안무가와 무용수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말과 움직임으로 풀어내며, 완성된 무대가 아닌 과정 그 자체로서의 발레를 보여준다.

▶11.25.(수) 오후 7시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는 물론, 왈츠·뮤지컬·영화음악 등 대중적인 곡들을 아우르며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2.2.(수) 오후 7시 손가락 젓가락 들고 떠나는 메구놀이(풍물) 맛기행 | 이바디예술단

풍물쟁이들의 손과 발이 되는 손가락과 젓가락의 구성 요소를 접목하여, 부산 지역에서 활발히 전승되어 온 아미동의 장단과 역사 속 선배쟁이들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풍물판이다.

▶12.9.(수) 오후 7시 추풍연(秋風宴) | 춤과 사람

사계절 중 가을을 배경으로, 한국무용의 정서인 한·흥·멋을 담아 풍요로운 계절의 의미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12.16.(수) 오후 7시 사노라면 | 원기동 국악예술단

[원기동 국악예술단이] 가지고 있는 가·무·악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른 탄생, 성장, 덧없는 삶의 인생사를 표현한다.

## 부산예술회관 기획 2026 희망을 노래하다

2025. 12. 19. 오전 10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예술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오늘을 비추고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그 힘은 때로 '희망'이라는 말로 불린다. 예술이 머무는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희망이 쌓이고, 그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가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연말의 문턱에 접어든 아침,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는 <2026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2025년도 부산예총 마지막 기획 공연이 관객을 맞았다. 전통과 현대, 노래와 춤은 장르의 경계를 나누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공연의 문은 [여는소리 현]의 순서로 열렸다. 가야금병창과 장단이 만들어낸 소리는 자연의 순환을 떠올리게 했다. 점차 넓어지는 음의 곁은 사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며 음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머무르지 않고 이어지는 선율은 삶의 힘든 지점에서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음을 조용히 암시했다. 빠르지 않은 호흡은 관객의 시선을 오래 붙들었고, 소리는 과장 없이 곡이 지닌 의미를 또렷하게 전달했다.

이어진 [빈체로댄스스포츠공연단]의 순서는 분위기를 전환했다. 삼바·차차·룸바·자이브·파소도블레로 구성된 라틴 종목과 왈츠·탱고·비엔나왈츠·슬로폭스트롯·퀵스텝의 모던 댄스는 리듬과 속도를 중심에 두며 공간의 공기를 바꾸었다. 몸의 각도와 시선은 분명했고, 동작은 음악의 구조에 맞춰 정리되었다. 정열과 우아함이 공존한 퍼포먼스는 관객의 시선을 모으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바리톤 박대용과 소프라노 고은솔의 순서는 노래가 지닌 서사에 집중했다. <카르멘>의 「투우사의 노래」와 영화 <My Fair Lady>의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 익숙한 레퍼토리는 오페라에 대한 낯선 감정을 자연스럽게 상쇄했다.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의 「Lippen Schweigen」은 두 성악가의 호흡을 중심으로 공연의 흐름을 정리하며 다음 순서로 이어졌다.

[박상용 용 무용단]의 <진도북춤>은 북을 두드리는 손끝과 몸의 방향을 통해 단순한 동작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여성 무용수들의 곱고 섬세한 움직임이 먼저 눈에 들어왔지만, 북을 울리는 힘 있는 박자에서는 또 다른 기운이 전해졌다. 움직임은 끝내 거칠어지지 않았고, 기계와 절제된 선이 균형을 이루며 춤의 성격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이 장면은 시각과 청각을 함께 자극하며 공연의 밀도를 높였다.

부산예총 수석부회장 김인숙은 국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한복 대신 드레스를 입고 가요를 선보였다.

패티김의 「가시나무새」를 통해 장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면모를 보여주었고, 관객의 호응은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색소폰 연주자 고민석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선율의 흐름에 집중했다. 브루노 마스의 「Uptown Funk」와 「붉은 노을」을 포함한 네 곡은 세대를 아우르는 선택이었다. 절제된 연주는 공연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또 하나의 색을 더했다. 마지막 트로트 순서에서는 제해창의 목소리가 관객과의 거리를 좁혔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그는 관객과 호흡을 나누며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객석과 무대 간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흐려졌고, 공연장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날 공연은 각기 다른 장르의 결을 통해 ‘희망’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했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은 경쟁하지 않고 하나의 시간 속에서 고르게 섞이며 관객 곁에 스며들었다. 연말의 아침에 펼쳐진 이 자리는 새해를 앞둔 이들에게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다.

글 박준영

# 2025 굿바이메모리전 부산문인협회

한 해 동안 창작의 고통과 희열을 견디며 시간을 수 놓아 온 75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시와 그림, 사랑이 담긴 작품들과 함께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문학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새해를 연다.

문의\_051)632-5888 / 편집실



## 겨울강을 묵독하다

박희선

겨울강물이 고요히 흐른다.  
시간과 시간을 여닫으며 물결로 흐른다.  
멀이든 생이든 아픈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일렁인다.  
세월이 제아무리 급물살을 타도 여전히 애잔하다.  
물도 바위도 풍화되지만 흔적만은 돌을별로  
나를 옮겨준다.  
물나물을 뜯던 할머니, 강둑을 하염없이 걷던 아버지.  
세상 법에 항거하던 애달픈 사랑, 모두 죽음에서 끝난  
역사를 접고 희로애락의 거친 삶을 토렴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쏟아지는 침묵을 너태 낀 겨울 강둑에서 은밀히  
묵독하고 있다.

- '수필 겨울강을 묵독하다' 중에서 -

## 희망

차정연

나는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를(이물질들)  
자기의 핵으로 보듬어 영롱한 진주를 탄생시킨  
조개의 삶을 사랑하고, 세공사의 수천 번  
손길이 눈길이 거친 정교함으로 빛어진  
신비한 다이아몬드의 맑음을 동경한다.  
그리고 금강석 같은 그 단단함을 믿는다.  
그러나 둘 다 원석은 돌이다.  
원석인 우리의 삶도 조개가 이물질들 보듬듯이  
세공사가 보석을 세공하듯이 내면을 살피고  
수 없는 손길과 눈길과 행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나)를 버리고 자기(나)를 찾는 동안  
금은 금으로 은은 은으로 쇠는 쇠의 가치와  
신념이 담긴 개성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다.  
개성 있는 자기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 시와 그림으로 나누는 따뜻한 새해맞이

2025. 12. 26. ~ 31.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 을숙도 노을

박혜숙

노을 꽃이 번져 스러지는 저녁  
반쪽 해를 붙잡으려 손짓하는 강변  
  
을숙도 발끝엔  
빛의 얇은 막이 걸리고  
  
버스와 사람 그림자도  
저마다  
흩어진 시간을 주워 담는다  
  
흔들리는 것은 꽃도 마음도  
저무는 숨결에  
노을 바라보는 눈길만 뜨겁다

# 사진아카데미 色時空색시공 세 번째 이야기

## 한 걸음 더 나아가니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2026. 1. 6. ~ 10.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지희정\_影映



권혁순\_도시, 상상 속의 찰라들

부산예총(회장 오수연)의 예술아카데미 가운데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수강생들이 세 번째 전시를 열었다. 사진아카데미 과정은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맡아 운영했으며, 임영필·박윤종·이상용·이양순·박준희·오테경·권혁순·지희정·이순혜 등 아홉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제목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자’에서 마주한 장면들에 시선을 둔다. 작가들은 특정한 대상을 찾아 나서기보다, 발걸이 닿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테경의 작업은 몽골 초원의 풍경을 배경으로, 그 땅을 상징하는 말들이 모여 평화로운 순간을 누리는 장면을 포착했다. 넓게 펼쳐진 공간 속에서 대상은 때로 중심이 되고, 이내 풍경의 일부로 스며든다. 낯선 장소임에도 화면에는 거리감보다는 익숙함이 남는다. 권혁순은 도시의 유리창과 반

사된 장면을 통해 일상의 틈을 드러낸다. 겹쳐진 이미지와 흐릿한 윤곽은 현실과 상상이 맞닿는 지점을 만들며,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도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지희정과 이순혜의 작업 역시 쉽게 포착되지 않는 순간을 따라가며, 시선이 머무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 전시는 피사체를 찾아 멀리 나아가기보다,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하는 데서 출발했다. 작가들이 마주한 ‘그들’은 특별한 존재라기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온 순간의 흔적이다. 여기서 ‘한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는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이 작은 시선의 이동이 만들어낸 사진들은 관람자의 감각을 조용히 건드리며, 익숙한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도덕과 원칙을 앞세워 유머를 추방하지 않고, 가끔은 실없음과 유치함을 기꺼이 즐긴다. 일상에서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향유와 축제가 된다. 재미는 인류가 변영하는 데에 꼭 필요한 기제 중 하나이자, 창의의 원천이며 삶의 활력소다. 버트런드 러셀은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말한다.

2026년, 부산은 ‘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난다. 재미와 품격을 겸비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고,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일상을 재미있는 여행처럼 살아가는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부산은 지금 가장 흥미로운 도시로 다가선다.

/ 편집실

# 재미있는 도시



## 예술부산 BUSAN



수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닿는 부산의 동쪽은 역동적이다. 갯바위에 부딪혀 흩날리는 파도와 일출의 빛으로 차오르는 바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마천루,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인 광안대교는 우리의 감각을 단번에 흔들어 놓는다. 반면 부산의 서쪽은 오래된 숨결처럼 조용하고 서정적이다. 바다와 강이 만나 낮은 속도로 흐르는 이곳에서는 희미한 빛에 감싸인 신비로운 하늘 아래로 철새들이 줄지어 날아가고, 광활한 습지에 펼쳐진 갈대숲은 시원한 강바람에 일렁인다.

최근 신도시 조성과 함께, 삶의 터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서부산에 예술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부터 사람

이 모이는 곳에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는 도시의 특색과 어우러져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왔다. 서부산은 지난해 12월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2026년 1월에는 낙동아트센터(클래식전용홀)의 문을 열었다. 그간 문화 불모지로 여겨져 온 서부산에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장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더해진 셈이다.

이로써 부산은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예술의 공간을 확대했다. 낙동아트센터와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의 개관은 서부산이라는 특정 공간을 넘어, 부산 전역 어디에서든 예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지형의 완성을 의미한다.

Accende lumen sensibus,  
Infunde amorem cordibus

그대 축복의 빛으로 우리의 정신을 인도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다오.

# 지역과 세계를 잇는 서부산의 랜드마크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2026. 1. 10. ~ 3. 5. 낙동아트센터



서부산 문화 르네상스를 여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 낙동아트센터가 1월 정식 개관을 맞아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개관 페스티벌은 총 20개 작품, 27회 공연으로 구성돼 교향곡·오페라·발레·연극·실내악·재즈·시 낭송·어린이 공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에게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 10~11일 이틀간 열린 개관 공연은 '낙동의 첫 울림 <낙동강 팡파레 & 말러 교향곡 8번>'으로 진행됐다. 「낙동강 팡파레」는 부산대학교 정수란 교수가 작곡한 창작 관현악곡으로, 백진현 동서대학교 교수가 지휘를 맡고 지역 연주자로 구성된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와 부

산·경남 지역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대형 교향곡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8번」을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선보이며, 서부산 지역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개관 페스티벌은 자체 제작 공연과 대중성 있는 작품들로 그 폭을 더 넓혀간다. 2월 5일부터 4일간 공연되는 오페라 <아이다>는 기획부터 제작, 무대기술, 출연진 구성까지 낙동아트센터가 총괄하는 작품으로, 창작과 제작을 아우르는 종합예술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어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2월 27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3월에는 완벽한 하모니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아카펠라 그룹 '킹스 싱어즈'의 내한 공연과 65년의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쾰른(WDR) 방송오케스트라가 8년 만에 내한해 무대를 채운다.

송필석 낙동아트센터 관장은 "낙동아트센터 개관을 기다려 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서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_051)970-2771 / 편집실



#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개관영화제

2025. 12. 17. ~ 2026. 1. 17.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2층 모두극장

서부산에 영화·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센터장 이승진)는 지난해 12월 정식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디어 기반이 부족했던 서부산 지역에 마련된 이 공간은 영화와 영상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점을 지향한다.

센터의 중심에는 85석 규모의 '모두극장'이 자리한다. 개관을 기념해 열린 개관영화제 <Go West! Go Cinema!>는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12월 17일 상영된 개막작 <소중한 날의 꿈>은 제15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장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개관의 첫 상영작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이 밖에도 <라라랜드>, <비긴 어게인> 등

음악과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함께 편성되며, 상업영화 중심의 상영관과는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고루 어우러진 구성은 관객과의 첫 만남을 깊이 있게 이어갔다. 극장은 크지 않지만, 영화에 집중하기에는 충분한 밀도를 갖추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디지털 드로잉과 포토샵 입문, 연기 수업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영상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창작의 과정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영화의전당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상영과 교육, 창작이 자연스럽게 맞닿는 구조를 갖추고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독립영화와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일상 속 영화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문의\_051)780-6300 / 편집실

## 부산시립미술관 2026년 가을 재개관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공유의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은 약 2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2026년 가을, 21세기형 미술관으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장과 수장고, 출입구를 전면 개선하고, 카페, 문화 편집숍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미술관 내외부를 유동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공유의 미술관'으로의 도약을 예고한다. 특히 히토 슈타이얼, 아이 웨이웨이 등 세계적 작가들이 참여해 예술, 기술, 자연의 공존에 대한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제안하며, 특수 설계된 미디어 조형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국제전은 '퓨처 뮤지올로지'(가제)로, 국내외 10여 개 미술관 협의체와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작품의 수집과 전시에 머물렀던 기존 미술관의 역할을 넘어, 공공의 장으로 확장된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특별 국내전 '사회와 미술: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가제)는 1945년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시기의 사회·문화·정치적 현실을 미술의 시선으로 조명한다. 해방 직후의 역동적인 시대 분위기와 이후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동시대 미술가들

의 작품을 통해 재구성하며, 이를 새로운 역사적 기록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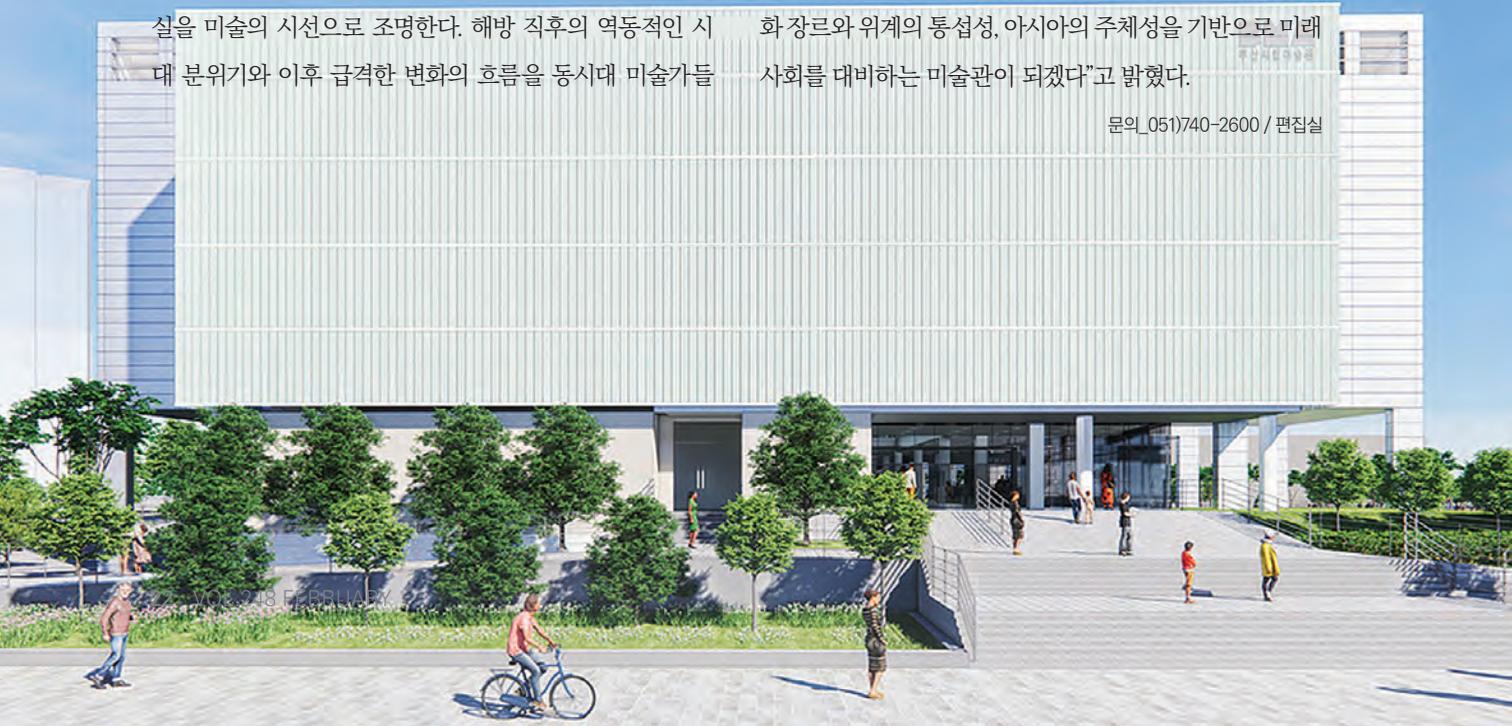
미술관의 역사를 돌아보는 '다시 짓는 미술관'(가제)은 1998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축적된 기관 및 건축 기록을 바탕으로, 사회·제도적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 온 미술관의 공간과 의미를 조명하는 소장자원 특별전이다.

어린이를 위한 전시 '안전기지'(가제)는 한 편의 동화처럼 구성된다. 미술관은 어린이의 정서적 결핍을 보완하는 '안전 애착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감각 발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시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이우환공간은 신작 설치를 통해 새롭게 변화할 예정이다. '루프 랩 부산'은 오는 4월에,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5'는 9월 국외 전시로 확장된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미술관은 재개관 이후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공공·공유의 미술관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사의 통시성, 문화 장르와 위계의 통섭성, 아시아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미술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_051)740-2600 / 편집실



##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_나의 집이 나 작아지는 세계, 다시 짓는 삶의 구조

# 도시축소 Urban Shrinkage

2025. 11. 29. ~ 2026. 3. 22.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은 2023년 '자연과 인간', 2024년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에 이어, 2025년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주거 위기, 고령화, 돌봄의 재편 등 도시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건축·도시적 상상력으로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독립성과 연대를 동시에 수용하는 '작은 집의 재편과 '돌봄이 닿는 거리'를 새로운 도시의 축량 기준으로 설정하고, 재순환 가능한 재료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 실험, 관계·리듬 기억을 삶의 구조로 다시 짓는 공간적 서사로 구성된다.

여기서 '축소는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 전환·회복 재구성의 언어로 제시된다. 더 작고 덜 소비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밀도와 공동체성을 회복해 삶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적 해석의 장이다. 전시는 작가, 건축가, 연구자 등 다학제 10팀이 참여해 미술관 실내의 곳곳에 10개의 파빌리온 형태로 다양한 실험적 공간을 제안한다.

### 에이디에이치디<sup>ADHD</sup> 「사이, 너머」

도시의 사이 공간과 경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새로운 공간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쌍안정 방식의 가변형 모듈 구조와 바퀴 경첩을 활용해 관람객이 구조물을 자유롭게 축소 및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는 물리적·심리적 경계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며, 개인과 공동, 사적 몰입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해석한다.

### 리슨투더시티<sup>Listen to the City</sup> 「임강크루-갯투-초품아-마피-강남불패: 지역소멸과 욕망의 도시」

「지역 소멸과 부동산 공화국」은 2채널 영상 설치로, 관객이 화면에 손을 가까이 대면 강남 3구와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나타난다. 이는 삶의 공간인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브역대신평초 1.2」는 LSTM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30년 후 주택 가격 격차와 출산율의 관계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도시 불평등의 심화를 경고한다. 부동산 과열 속에서 등장한 신조어를 알아보는 게임과 책도 함께 전시된다.

### 강해성+문소정+한경태 「이동하는 모듈러 만물상」

이동형 만물상 트리를 통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이주 과정에서 남겨진 가구를 수집해 조각으로 재구성한다. 수집·조합·환류의 순환 구조를 통해 돌봄의 지속성과 회복 가능성을 탐구하며, 사물에 남은 흔적을 새로운 돌봄의 단서로 제시한다.

### 유림도시건축<sup>Yoolim Architects</sup> 「인피니트 루프: 도시연대기」

투명한 터널 구조는 관계의 그물망과 삶의 흔적, 사람들의 기억을 형상화한 공간으로, 도시와 자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관람객은 곡선형 통로를 거닐며 도시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유림도시건축<sup>Yoolim Architects</sup>\_인피니트 루프 도시연대기



1 에이디에이치디ADHD\_사이, 너머 2 리스너더시티Listen to the City\_임장크루-갯투-초폼아-마피-강남불패: 지역소멸과 욕망의 도시  
3 강해성+문소정+한경태\_이동하는 모듈러 만물상 4 포자몽Pozamong\_마이코셀 유니버스: 균류와 인간의 공존  
5 서울퀴어컬렉티브Seoul Queer Collective\_우리는 모두 팔십에 서로의 영양보호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포자몽Pozamong 「마이코셀 유니버스: 균류와 인간의 공존」**

부산 원도심의 공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셀Cell 구조물은 영도구 폐가에서 채집한 균사체에 의해 점령되며, 인간이 만든 건축이 비인간 생명체에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4계층 센서와 첨단 AI 시스템은 관람객의 체류 시간, 접촉, CO<sub>2</sub>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발광 균사의 성장 패턴과 음향 환경을 변화시키며, 인간과 비인간이 공조하는 살아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서울퀴어컬렉티브Seoul Queer Collective 「우리는 모두 팔십에 서로의 영양보호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퀴어를 포함해 비혼-졸혼고령자 등 제도 밖의 관계들은 기존 도시 구조 속에서 비가시화되어 왔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작품은 관계가 건축에 앞서서 풍경으로서, 각자의 의자가 서로 등지고 교차하며 그 자체로 축소된 하나의 도시 구조가 될 수 있을지를 실험한다.

**주현제바우쿠르트HyunjeJoo\_Baukunst 「콘크리트 유토피아」**

폐휴관 등 도시 건설 자재를 유휴 구조물로 재활용해 도시 속에서 잊힌 관계를 다시 묻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사고의 틀을 재사유하게 만드는 도시적 실험이다.



6 주현제바우쿠스트HyunjeJoo\_Baukunst\_콘크리트 유토피아 7 랩.WWW\_함께 짓는 도시  
8 공감각Common Senses\_변화하는 도시, 다시 쓰이는 삶 9 더 파일룸The File Room\_뎁츠 마이 네이버

**랩.WWWlab.WWW 「함께 짓는 도시」**

종이접기와 팝업북에서 영감을 받은 참여형 설치로, 관객은 '벽'을 해체하며 집과 도시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구의 손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묻는 시각적 실험이자 공생의 미래를 상상하는 예술적 제안이다.

**공감각Common Senses 「변화하는 도시, 다시 쓰이는 삶」**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축소되고 있는 부산 원도심을 배경으로, 전시 공간을 변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비계 구조물로 구성했다. 관람객은 '걷는 행위'를 통해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감각과 마주하게 된다.

**더 파일룸The File Room 「뎁츠 마이 네이버」**

영도 지역 답사를 기반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도시 생태계를 설치, 영상, AR, 출판물로, 다성적으로 구현한다. 영도의 도시 생활사가 각인된 문들과 조선소·철공소에서 수집한 산업용품을 나선형 구조물로 설치하고, AR 기술로 구현된 조선소의 철근과 담벼락 이끼, 하구 생명체 등은 시공간의 층위 속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문의\_051)220-7400 / 편집실



2025. 11. 18. ~ 2026. 3. 2.  
부산근현대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

## 섬이 품어온 역사를 돌아 보다 부산의 보물섬, 영도

영도는 늘 부산의 가장자리에 놓인 섬이었지만, 동시에 부산 근현대사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은 영도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고, 그 고립은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불러들였다. 부산근현대역사관 특별기획전 '부산의 보물섬, 영도'는 바로 그 시간이 남긴 길을 따라가며, 영도가 품어온 부산의 역사를 하나의 서사로 다시 펼쳐 보인다.



이번 전시는 역사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부산 지역문화 기획전으로, 영도의 역사와 문화를 공간·시간·사람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엮어낸다. 전시는 영도를 단순히 산업의 섬이나 피란의 장소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섬을 이루어온 자연환경과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영도가 어떻게 부산 근현대사의 무대가 되었는지를 차분히 풀어낸다. 주민의 기록과 기억을 함께 담아낸 시민 참여형 전시라는 점 역시 이번 전시의 중요한 특징이다. 1부 '절영도를 찾아서'



2



3

1 테왁과 망사리, 전복 빗장, 성계 호미, 성계손질 체, 해녀 잠수복  
2 청진잠수기산업사 잠수기\_현대, 국립해양박물관 3 봉래산 할매당 당산 할매명화\_현대, 영도향토문화동호회/봉래산 쇠말뚝

는 영도의 옛 이름에서 출발한다. '그림자를 꿈을 만큼 빠른 말이 사는 섬'이라는 뜻의 절영도는 봉래산과 태종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환경과 함께 섬의 공간적 성격을 보여준다. 태종대 기우제 축문과 봉래산 정상에서 발견된 쇠말뚝, 옛 지도와 회화 자료는 영도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오랜 시간 인간의 영원과 신앙, 이동의 경로가 겹쳐진 장소였음을 말해준다. 섬이라는 조건은 영도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바다를 향해 열린 통로이기도 했다. 2부 '물길을 건너'에서는 영도의 근현대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일제강점기 군사·산업시설의 설치와 개항 이후 일본인의 이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시절의 기억까지, 영도는 늘 시대의 격랑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피란민과 해녀의 삶, 영선서울피란국민학교 학생의 일기장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살아낸 개인의 시간을 생생하게 전한다. 특히 조선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선박 수리 능력을 갖춘 섬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은, 영도가 부산의 끝에 위치하면서도 부산 산업사의 중요한 축이었음을 보여준다. 전시의 마지막인 3부 '뒀을 내리다'는 영도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

로 삼아온 선박 수리 노동자, 영도 토박이 주민, 그리고 다시 섬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이야기는 영도가 과거에 머물지 않는 공간임을 증명한다. 구술 기록과 인터뷰 영상, 주민들이 직접 그린 심상지도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던 생활의 기억을 전시장 안으로 불러온다. 여기에 변관식의 「영도교」, 교회동의 「영도해안」, 이영아 작가의 그림책 『깡깡깡』의 원화까지 더해지며, 영도는 예술문화적인 시선으로도 다시 그려진다.

'부산의 보물섬, 영도'는 영도를 설명하거나 규정하기보다, 그 안에 쌓여 온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섬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많은 삶이 닳을 내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며 남긴 기억은 지금도 영도를 활발히 움직이는 장소로 만든다. 이번 전시는 그 기억의 결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밟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의\_051)607-8000  
글\_편집실, 사진제공\_부산근현대역사관



## 고은사진미술관 + 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2026 주목해야 할 **‘올해의 사진가’**

2026. 1. 29. ~ 3. 27. 고은사진미술관

고은사진미술관은 2012년부터 KT&G 상상마당과 함께 사진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작업의 완성도와 실험정신을 겸비한 신진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올해의 최종 사진가’로 선정된 성의석과 ‘올해의 사진가’로 선정된 김영경, 지원김의 작업을 소개한다. 올해의 사진가 3인은 제도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소극적인 반항, 삶과 이미지의 이동성과 전환, 동시대의 멸종 감각을 기록적·확장적·실험적 사진 언어로 풀어내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 미래의 징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여준다.

지원김 「Grand. Grand. Pa」는 사진, 편지, 엽서 등을 누렇게 바랜 종이에 다시 인쇄하거나 앞뒤가 뒤집힌 상태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과 가족의 서사를 포개어 풀어낸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로 이어지는 남성 가장들의 기록은 여성의 시선으로 다시 읽히며, 평양에서의 유년기, 전쟁기 피난, 마산에서의 재정착, 서울로 이어지는 이동의 궤적은 개인의 삶을 넘어 한 세대의 집단적 기억과 맞닿아 있다. 작업은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에 머무는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하며, 직접 발화하지 않고도 의미를 생성한다.



김영경 「호르는 땅」은 라이다를 예술적 매개로 전유한 레조그래피(레조그래피(Lazography)는 'laser'와 '-graphy'의 합성어로, 작가가 2020년에 고안한 용어이다. 라이다 기술을 예술적 매개로 재해석해 구축한 독자적 시각 형식을 일컫는다.)를 통해 삶과 이미지의 이동성을 중첩해 탐구한다. 작가는 판화, 사진, 레조그래피, 포토그래메트리, 3D 이미지, AI 이미지 등을 넘나들며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 주목하고, 「호르는 삶」을 따라 「터의 전환」을 사유한다.

「땅에서 구름으로」는 인간에서 기계로 이동하는 시각적 주체의 변화로 확장해 보여준다. 인간에게는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이미지가 기계에는 구체적인 좌표값과 정보로 기능하는 상황 속에서 감각과 인지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다. 현재의 기록과 미래적 상상이 교차하는 지



점에서 사진은 현재를 증언하는 동시에 이후의 시간까지 열 어두는 매체로 작동한다.

성의석 「Music Has the Right to Children」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진가이자 개인으로서 느낀 불안과 무력감을 이미지 실험으로 연결한다. 감각은 혼롤로지 Hauntology라는 개념으로 시각화되며, 과거의 미학적 요소를 현대 디지털 기술로 재편집해 향수와 불안이 섞인 동시대의 정서를 만들어낸다. 사진은 도시의 급류 속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장면을 포착하고, 고해상도로 스캔해 변형한 기념우표 도상은 과거에 꿈꾸던 밝은 미래가 도래한 현재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AI 이미지가 더해지며 시간의 층위가 뒤틀린 채 멈춰 있는 듯한 기시감을 전달한다. 작가는 자신에게서 파생된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기록의 주체로서 입력값을 선택하고 결과를 관찰·편집하는 '샘플러'로서 동시대 사진가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문의\_051)746-0055 / 편집실

1 김영경\_땅에서 구름으로 58, 130×174cm,

Archival Pigment Print, Wood Pannel, 2024 ©Youngkyung Kim

2 성의석\_세계의 중심 이제는, 40×32cm, Light box, 2024 ©Euseok Seung

3 지원김\_family portrait, 42×59.4cm,

UV Print on plywood, 2025 ©Jiwon Kim

# 사제동행 프로젝트 VIII <춤-同舞同樂> 사제동행이 건네는 춤의 서사

2025. 12. 20.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매년 연말이면 이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부산여자대학교 BWC댄스 컴퍼니가 선보이는 '사제동행' 프로젝트 공연이다.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으로 8 회째 이어져 온 사제동행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전국의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춤이라는 예술로 하나의 에너지를 빛어낸다. 춤이 신과의 합일로 나아가는 매개라면, 사제동행은 그 여정의 길목에서 관객을 신명과 관능, 그리고 광기의 세계로 안내한다.



한국무용 <설장구춤>

올해 공연의 제목은 <춤-동무동락(同舞同樂)>이다.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긴다'는 의미처럼 한국무용, 스트리트댄스, 발레, 현대무용, 벨리댄스, 탭댄스는 물론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진도북춤(박병천류)까지 아우르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파트 1의 문은 김해성 교수가 이끈 한국무용 <흥취(興趣)>(안무 김해성)가 열었다. 스승들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춤사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베일로 연출된 신비로운 무대 위에서 부채가 만들어내는 유려한 선과 입체적인 구성을 통해 한국 춤 특유의 고풍미와 흥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진도북춤(박병천류)> 박명현



발레 〈행운의 수레바퀴〉

〈진도북춤(박병천류)〉은 독일에서 활동 중인 박명현의 솔로 무대로 펼쳐졌다. 북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신체의 일부처럼 작동하며 여백 없는 에너지로 관객을 압도했다. 술개사위, 말발굽, 품앗이 등 독특한 몸짓은 장단과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신명 나는 흐름을 만들어내며 전통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또렷이 각인시켰다. 이어진 11명의 무용수가 선보인 〈설장구춤〉(채구성 및 지도 김해성, 이주현)은 일사불란한 호흡으로 농악과 춤이 빛어내는 집단적 에너지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감탄을 자아냈다.

파트 2의 스트리트댄스 〈LUCID〉는 학생들의 공동 안무로, 젊은 예술가들이 지닌 혼돈과 욕망을 밀도 높은 움직임으로 풀어냈다. 응집과 확산의 반복을 통한 광기와 같은 에너지는 공연장 전체로 확장됐고, 이를 통해 부산 무용계의 현재와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발레 〈행운의 수레바퀴〉(안무 김민교)는 운명과 구원의 서사를 중심으로 공연의 호흡을 전환하며 극적 긴장을 이어갔다.

현대무용 〈구원〉(안무 이혜리)은 붕괴와 재생의 흐름 속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독창적인 서사 전개로 풀어냈다. 느림과 여유 속에서 발산되는 무용수들의 기량은 인상적이었으며,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 또한 돋보였다. 벨리댄스 〈Oriental Night〉(안무 신유정)는 상들리에 형식의 촛대를 활용한 무대 연출로 관능적 아름다움과 시각적 압도감을 동시에 선사했고, 탭댄스 〈One Beat One Team〉은 발끝으로 표현한 개성 있는 리듬으로 경쾌한 에너지를 공간 가득 채웠다.

마지막 무대 〈당클매다(신이 머문 자리)〉(안무 서택구)는 공연의 피날레를 장대한 여정으로 완성했다. 제주굿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신이 머무는 공간 '당클'을 전통 의식의 정서와 현대적 감각이 교차하는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냈다. 붉은 고깔을 쓴 손영일의 춤사위는 독보적이었으며, 무릎을 굽혀 하늘에 의식을 치르는 몸짓과 장삼놀림, 신칼을 응용한 구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

엔딩에서는 전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한 해 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하나의 장면으로 모아냈다. 이날 사제동행이 펼쳐놓은 춤의 에너지는 관객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2025년 연말 크리스마스의 선물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

글\_정혜주



스트리트댄스 〈당클매다(신이 머문 자리)〉



부산박물관×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교류기획전

## 거장의 비밀

#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

2025. 9. 30. ~ 2026. 1. 18.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문학의 세계에서 거장들은 이름보다 글로 더 오래 기억된다. 부산박물관이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과 협력해 선보인 교류기획전 '거장의 비밀: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은 책 속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작가들의 얼굴과 종이 위에 남은 흔적을 통해 영국 문학 500년의 시간을 한 장소에 모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부터 지금도 세계 독자와 호흡하는 작가까지, 전시는 문학이 남긴 시간을 폭넓게 아우른다.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1564~1616)를 비롯해 찰스 디킨스Charles John Huffam Dickens(1812~1870), 제인 오스틴Jane Austen(1775~1817),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1859~1930), J. K. 롤링Joanne Kathleen Rowling(1965), J.R.R. 톨킨John Ronald Reuel Tolkien(1892~1973) 등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78인의 초상화와 친필 원고, 편지, 희귀 초판본 등 137점을 선보였다. 전시는 문학사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작가 개인의 삶과 선택이 어떻게 글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글이 다시 사회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따라간다. 전시는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초상과 글을 통해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1부 '작가를 찾아서', 거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조명한 2부 '위대한 여정', 억압과 검열 속에서도 목소리를 잃지 않았던 작가들을 다룬 3부 '억압과 검열, 그리고 저항', 명성이 남긴 빛과 그림자를 살핀 4부 '명성', 그리고 글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묻는 5부 '글의 힘'까지. 관람자는 각 시대의 분위기와 그 속에서 작가들이 품었던 개인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전집 『퍼스트 폴리오First Folio』였다. 1623년, 셰익스피어 사후 동료들에 의해 출간된 이 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됐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한 권의 책은 문화사적 가치 이전에, 글이 어떻게 남겨지고 전해지는지를 묵묵히 증명한다. 이와 함께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친필 원고,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 원고, 현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의 집필 흔적, 그리고 J. K. 롤링의 친필 삽화가 담긴 『해리포터』 초판본까지, 종이 위에 남은 필체와 수정 흔적은 완성된 작품 뒤편에 존재했던 망설임과 선택의 시간을 고스란히 전한다. 작가들의 삶을 알고 전시를 바라보면 이야기는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싱글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J. K. 롤링이 여러 출판사의 거절 끝에 세상에 내놓

은 『해리포터』는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도시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았다. 아서 코난 도일 역시 『셜록 홈스』 시리즈의 성공으로 인해 작가 자신의 이름보다 캐릭터가 더 강하게 기억되는 역설을 겪었다. 『셜록 홈스』를 죽이는 선택 이후 이어진 작가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의 거센 사회적 반응은, 작품 속 인물이 현실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토머스 모어Thomas More(1478~1535)의 『유토피아』가 정치적·사회적 개념으로까지 확장된 사례 또한 문학이 사회를 움직여 온 방식을 잘 드러낸다. 브론테 자매Brontë sisters의 초상화 역시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세 자매 모두 뛰어난 작가였지만, 시대의 제약 속에서 본명과 성별을 숨겨야 했던 흔적은 그림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시장 일부는 실제 서재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며졌고, 관람객이 직접 글을 남길 수 있는 방명록과 작가들의 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이는 문학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쓰고 듣는 감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전시장을 걸으며 작품으로만 접해 왔던 이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문학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온 개인의 기록으로 다가왔다. 이 전시는 '거장'이라는 단어를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며 글을 써 내려간 한 인간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111일간 이어진 전시는 막을 내렸지만, 전시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왜 글을 남기고, 어떤 얼굴로 기억되는가. '거장의 비밀'은 문학을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 작가와 사회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전시였다.

문의\_051)610-7111 / 편집실

1 셰익스피어Shakespeare 1©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2 찰스디킨스Dickens 1172 ©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 II 쓰임

### 조개의 활용

Shell in Use

한일 바닷길의 기억을 깨우다

# 조개, かい카이: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

2025. 12. 2. ~ 2026. 3. 2.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바다에는 전 세계의 역사가 겹겹이 퇴적되어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조개, かい: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은 그 시간의 층위를 '조개'라는 작은 매체를 통해 조명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살아온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섬세하게 짚는다. 전시는 조개를 단순한 식재료나 자연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인류의 삶 속에서 조개는 도구가 되었고, 장신구가 되었으며, 때로는 얼굴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기능해 왔다. 패각에 남은 흔적은 이동과 교류의 기억이자, 바다를 매개로 형성된 문화의 기록으로 이어진다. 전시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 조개가 생활의 영역을 넘어 예술로 확장돼 온 과정



1

을 시대별로 풀어낸다. 특히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은 이번 전시의 중심에 놓인다. 발굴 이후 54년 만에 고향인 부산에서 처음 공개되는 이 유물은, 조개가 장식을 넘어 의례와 상징의 매개였음을 보여준다. 일본 히로타 유적(広田遺跡)에서 출토된 조개 장신구와 구마모토 아타카 패총(阿高貝塚)의 조개 가면 역시 함께 전시되며, 한일 양국이 공유해 온 해양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2

전시는 도입부 미디어아트를 시작으로 인간과 조개의 첫 만남, 생활 속 쓰임새, 나전공예로 이어진 예술적 확장, 그리고 체험형 공간까지 네 개의 흐름으로 구성됐다. 관람자는 조개를 바라보는 시선과 쓰임새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바라보며, 바다가 남긴 기억을 시대를 넘어서 마주하게 된다. 작은 패각에 담긴 이야기는 생각보다 장대하고 깊다. 이번 전시는 미시적인 대상에서 출발해,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나라의 문화적 시간을 함께 되짚는다. 바닷길 위에 남은 기억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조개는 그 생생한 증거로 존재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전시가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51)309-1900 / 편집실

- 1 조개 장신구 일괄\_日 가고시마현 히로타 유적(広田遺跡) 출토, 3~7세기, 日 중요문화재, 日 가고시마현 역사·미술센터 여명관 소장  
2 조개가면\_부산 동삼동 패총 유적 출토, 신석기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근대 전통 나전칠기



3

# WICKED

## 스크린과 무대에서 만난 위키드

예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K팝스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다. 시즌 1의 우승자 박지민이 무대에서 선보인 「Over the Rainbow」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대표적인 삽입곡으로, 그의 가창력과 곡 해석은 물론 심사위원으로 나섰던 박진영의 반응까지 더해지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이 현대의 무대를 통해 다시 호출된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한 작품이 시대를 건너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 라이먼 프랭크 바움(Lyman Frank Baum, 1856~1919)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다. 1939년 개봉한 영화는 작품의 인지도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렸고, 흑백 화면에서 판타지 세계 '오즈'로 넘어가며 컬러로 전환되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영화사를 대표하는 순간으로 회자된다. 이후 수많은 리메이크와 2차 창작으로 이어지며 작품의 영향력은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이 세계관은 단순한 동화를 넘어, 세

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는 이야기의 토대가 되었다. 이 세계관을 다른 시선으로 확장한 작품이 있다. 1995년 그레고리 머과이어(Gregory Maguire)가 집필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 속 마녀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기존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원작만큼의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2024년 영화 <위키드: 포 굿>의 개봉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영화 2부에 해당하는 <위키드: 포 굿>의 개봉 시기와 뮤지컬 위키드의 부산 내 한 공연이 맞물리며, 작품은 다시 현재형의 이야기로 소환되었다. 관객의 관심은 더 이상 원작에 머무르지 않고, '위키드'라는 이름 자체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같은 세계관과 같은 원작의 뿌리를 두고도,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전혀 다른 감각으로 구현된다. 스크린 위에서 확장된 이야기와 무대 위에서 체화된 서사는 관객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차이로 이어진다.





### 등장인물의 서사

영화와 뮤지컬 위키드는 차별과 박해 속에서 자신을 지켜 내려는 존재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다만 인물의 서사를 쌓아 올리는 방식과 이를 드러내는 연출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인물을 바라보는 관객의 거리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인공 엘파바는 선천적으로 강력한 마법 능력을 지녔지만, 녹색 피부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의심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설정은 외형과 출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구분해 온 인류의 역사와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이 지점은 특히 영화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화에서 엘파바를 연기한 신시아 에리보 Cynthia Erivo는 흑인 배우로, 캐스팅 자체가 인물의 서사를 직관적으로 보강한다. 설명보다 이미지가 먼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엘파바를 연기한 셰

리든 아담스 Sheridan Adams는 뮤지컬 특유의 상징성과 노래를 통해 인물을 완성해 나간다. 인증적 표상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만큼, 차별을 다루는 방식은 영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는 감정을 압축해 전달하는 무대 예술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관객은 인물의 처지를 해석하기보다, 노래와 동작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마법학교 스위트 Shiz에서 벌어지는 딜라몬드 교수 체포 사건은 엘파바의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말을 할 수 있는 염소 교수의 체포는 동물에 대한 박해를 가시화하며, 따돌림받던 엘파바와 킹카인 왕자 피에로를 연결하는 접점이 된다. 동시에 이 사건은 갈린다가 '글린다'로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기억이 인물의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이다. 이러한 인물 간의 연결은 영화에서 더욱 촘촘하게 확장된다. 엘파바의 유모 역할을 했던 곰과의 관계, 오즈 바깥

# WICKED

세계의 노출, 마법을 쓰지 못하는 마녀 글린다의 과거 서사는 영화에서 인물의 선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한다. 다만 이러한 확장을 위해 선택한 긴 러닝타임은 일부 장면에서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야기를 덧붙이는 방식이 때로는 몰입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뮤지컬은 다른 장점을 드러낸다. 영화에서는 엘파바의 마법이 지나치게 강력하게 묘사되며 도망자로서의 긴장감이 약화되는 반면, 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가 유지된다. 라이브 공연 특유의 밀도는 인물의 감정을 보다 응축된 상태로 전달하며, 관객을 이야기 한가운데로 끌어당긴다.

## 연출의 차이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Defying Gravity」 장면은 두 매체 모두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영화에서는 와이어 액션과 카메라 워크가 결합된 비행 장면이 시각적인 몰입을 이끈다. 화면은 엘파바의 결단을 거대한 이미지로 확장시키며, 한 인물이 세계와 맞서는 순간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반면 뮤지컬에서는 비행의 사실성보다 무대 연출과 음향에 집중한다. 엘파바가 무대 상부로 올라가며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는 장면은, 그를 하나의 상징으로 고정시킨다. 움직임은 제한되지만, 관객의 시선은 오히려 더 집중된다. 매체가 달라도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글린다는 두 매체 간의 괴리를 완화하며 있는 인물로 기능한다. 영화에서 아리아나 그란데Ariana Grande가 연기한 글린다와, 뮤지컬에서 코트니 몬스마Courtney Monisma가 연기한 글린다는 서로 다른 매체에 놓였음에도 유사한 캐릭터 톤을 유지하며 작품 간의 간극을 좁힌다. 이는 인물이 매체를 넘어 어떻게 유

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연출의 선택이 엇갈리는 지점도 있다. 네사의 구두에 마법을 거는 장면에서 뮤지컬은 '건게 하는 힘'을, 영화는 '날게 하는 힘'을 선택한다. 전자는 인물의 욕망을 이해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반면, 후자는 시각적 인상을 우선한다. 도로시의 등장을 암시하는 방식 역시, 뮤지컬은 그림자로, 영화는 실루엣으로 처리하며 각자의 거리감을 유지한다. 무대 공연의 특성상 스모그 효과로 인한 불편함도 있었지만, 라이브 연주와 지휘가 만든 어넌 공연의 생동감은 무대 예술만이 지닐 수 있는 매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 두 이야기가 남긴 것

위키드는 같은 이야기를 두고도, 매체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스크린은 세계를 넓히고, 무대는 인물을 가까이 데려온다. 영화와 뮤지컬을 함께 마주한 시간은, 하나의 서사가 얼마나 다양한 감각으로 변주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글\_박준영



## 폐교에서 길을 묻다: 폐교 활성화 <1>



폐교는 문을 닫은 학교를 뜻한다. 2026년 현재, 전국 4000곳에 이르는 폐교는 인구 절벽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픈 단면이자 지역 공동체 소멸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탄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침몰하는 배와도 같다. 부산에서도 이미 50여 곳의 학교가 같은 운명을 맞았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먼지 쌓인 책걸상만이 교실 창문 너머로 찬란했던 과거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진정한 문제는 '닫힌 문'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폐교를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험학습장 등으로 탈바꿈시키며 끊임없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왔

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생동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박제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설상가상으로 폐교의 행렬은 앞으로도 멈출 기미가 없다.

이제는 관점을 전환할 때다. 폐교를 단순히 수명을 다한 '죽은 공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 행정, 창의적 아이디어,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잠재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폐교 공간의 재생과 활성화는 상상력과 소통의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희망을 피워낼 수 있다. 이에 세 차례에 걸쳐 지속 가능한 활성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초고령 부산: 외로움의 시대, 폐교에 답이 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미국 연방정부 공중보건서비스단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의 이 경고는,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같은 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고, 영국과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외로움과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했다. 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마음속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중보건의 위기다.

이 위기의 중심에 바로 노인이 있다. 노년의 외로움은 철학적 사유의 여백이 되기보다는, 삶을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현실적 고통으로 작동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인 외로움을 호소한다는 통계는 결

코 가깝지 않다. 외로움은 우울과 무기력,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고독사라는 비극적 결말로 귀결되기도 한다. 노인의 외로움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 신호다.

이 문제는 부산에서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일상과 관계, 활동과 역할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상담이나 건강관리, 강의와 여가 프로그램 중심의 비교적 닫힌 구조에 머물러 있다. 돌봄과 보호는 제공되지만,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나 생산적 역할을 회복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고령사회 부산은 노인의 외로움에 대응할 공간적 해법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눈길을 돌려볼 자원이 있다. 바로 폐교다.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에는 이미 50곳이 넘는 폐교가 존재하



며, 앞으로도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폐교는 매각 대상이거나 임시 활용 공간, 혹은 방치된 채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폐교는 고풍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공 자산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이다.

폐교 활용의 가능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부산 서구 압남동의 알로이시오기지1968은 폐교를 복합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교육과 체험, 생산과 놀이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개관 이후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이 찾는 지역의 상징적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폐교가 '사람이 머무르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모델을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상상력이다. 폐교를 노인의 삶을 품는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여기서 출발한다. 기존 노인복지시설이 단순히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폐교는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육과 체험, 생산과 보건 기능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열린 생활 거점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구상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교정과 운동장 일부를 공동 경작지로 활용해 노인들이 직접 작물을 기르고, 이를 폐교 내 장터에서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하루 한두 시간의 선택적 참여만으로도 노인은 활동과 성취,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공동 식사 공간과 명상, 교양 강좌, 음악·미술·체육 활동, 간단한 의료 서비스가 결합된다면 폐교는 노인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활 공간이 된다. 동시에 카페나 독서실, 소규모 영화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면 세대 간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공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전남 고흥의 '고흥손맛반찬' 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지역 노인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며 지역사회

와 관계를 맺는 이 사업은, 돌봄이나 금전 지원보다 생산적 활동과 역할 부여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단단히 지탱하는지를 보여준다. 외로움의 반대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운다.

물론 폐교 재생사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기대와 달리 운영 주체의 부재,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부족, 교육청과 지자체 간 권한 조정 문제로 흐지부지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폐교 활용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운영 모델과 제도 개선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폐교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를 예고한 것은 그런 점에서 반가운 신호다.

외로움의 해법은 결국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 담기는 관계와 활동이다. 폐교는 이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대다. 폐교 활용은 노인 문제 해결을 넘어 원도심 쇠퇴, 세대 단절, 공동체 해체라는 도시의 구조적 난제에 동시에 답할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교실과 운동장이 노인의 대화와 활동, 지역민의 문화로 다시 채워질 때, 폐교는 방치된 건물이 아니라 사회를 회복시키는 플랫폼이 된다.

부산이 '늘어나는 도시'에 머물 것인지, '노인까지 품는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간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폐교의 재탄생은 단순한 시설 재생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외로움으로부터 노인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결국 사람이 다시 모이고 관계가 살아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 중심에 폐교의 활용이 있다.

폐교라는 그릇에 '노인의 존엄'과 '사회적 관계'를 담아보자. 상상력과 소통의 능력을 회복한 우리 사회가 폐교의 담벼락 너머로 피워낼 희망의 꽃을 기대한다.

글\_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1 2025년 3월 폐교된 부산 주원초등학교 전경. 부산일보DB  
2 알로이시오기지1968 '기지 1동' 4층 '모두의부엌'에서 요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의부엌'은 집과 같은 요리 활동 공간이다. 부산일보DB

# 중앙아시아 3국을 가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서 동서 문명이 교차해 온 공간이다.  
이번 여행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잇는 여정으로,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들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마주했다.  
단체여행의 한계 속에서도, 동서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중앙아시아의 풍경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글·사진 정명희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 서랍 속의 노스탤지어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서 가끔은 눈을 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손바닥 안의 액정은 잘 닦아놓은 유리창처럼 매끄럽고, 그 표면 위로 세계는 0과 1의 정교한 직조를 통해 고화질의 픽셀로 번뜩인다. 기술은 이제 실물의 질감을 넘어 풀잎 끝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의 미세한 떨림까지 집요하게 포착해 낸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시게 차가운 선명함은 때로 우리를 기억의 망명자로 만들고 만다. 감각이 마비될수록 마음은 이 지나친 밝음에서 미끄러져 나와, 가장 천천히 흘렀던 시간의 그늘로 스스로를 데려간다.



문득 중고등학교 시절의 소풍날이 떠오른다. 그날 우리 손에는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한정된 롤 안에 담아야 했기에 셔터를 누르는 일은 늘 한 박자 늦춰졌다. 프레임 너머로 친구의 웃음이 막 터져 나오려는 순간, 감지는 셔터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인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 짧은 주저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처음 배웠다.

카메라 뷰파인더 속 세계는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작은 렌즈 너머의 풍경은 흔들리듯 일렁였고, 초점을 맞추는 동안 우리는 그 순간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스물네 장, 혹은 서른여섯 장이라는 한계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끊임없이 묻게 했다. 셔터를 누르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순간을 받아들이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까웠다.

그 결심은 셔터 소리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소풍이나 여행을 다녀오면 며칠 뒤, 누군가 인화된 사진 뭉치를 들고 교실로 들어왔다. 단체 사진 한 장을 앞에 두고 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벌이던 '사진 품평회'는 그 시절 소풍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기도 했다. "야, 너 여기서 눈 감았어!" "난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나?"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얼굴을 찾느라 바빴다.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이 아무리 흐릿하고 흔들렸어도 오직 내 얼굴 하나만 잘 나왔으면 그 사진 뒤에 체크 표시를 하며 신청하곤 했다.

지금처럼 화면을 손가락으로 확대할 수는 없었다. 오십 명이 넘는 아이들이 빼곡히 들어찬 단체 사진 속 얼굴들은 콩알만 했다. 그런데도 사진을 집으로 가져가면 엄마는 단번에 내 얼굴을 찾아냈다. 미간에 주름을 잡고, 사진을 이리저리 기울이던 엄마가, "여기 있네, 우리 딸!" 하며 내 얼굴을 찾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흐릿하고 작은 그 얼굴을, 똑같은 교복을 입은 수십 개의 다른 얼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보는지 마냥 신기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의 초점이었다.

그렇게 마음으로 먼저 초점을 맞춘 뒤에야, 사진은 비로소 물리적인 절차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인화 신청서에 각자의 뒤통을 적어 사진관으로 보냈다. 필름을 맡기고 사진이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소풍이 끝난 뒤에도 시간이 쉽게 흘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기간이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기억이 서서히 가라앉아 자리를 잡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손바닥 위에 건네진 몇 장의 종이 사진에는, 장면보다 오래 남은 설렘과 망설임이 함께 눌러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미지를 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그 시간을 살아냈음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다.

사진을 받아 든 그 순간의 촉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약간 뻣뻣한 인화지의 질감,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요철. 사진을 뒤집으면 거기에는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붉은 잉크로 새겨진 그 날짜는 단순한 정보 이상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물질로 번역된 흔적이었고, 기억이 종이 위에 눌러 새겨진 자국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앨범에 차곡차곡 끼워 넣으며 시간을 정리했다.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에서 들리는 비닐 커버의 바스락거림은 기억을 여는 의식과도 같았다.

지금의 사진들은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지는 즉시 화면 위에 펼쳐지고, 손가락은 반사적으로 확대와 삭제를 반복한다. 선명해진 대신, 사진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날의 공기나 망설임, 장면 앞뒤에 남아 있던 시간까지 함께 품기에는 너무 가볍다. 반면 앨범 속 사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한 장을 꺼내 보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넘기고, 비닐을 젖히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사진은 이미지에서 시간으로 바뀐다.

그 시절의 기다림은 오래전 유행했던 팝송, 「*높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어줘*<sup>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e Oak Tree</sup>」의 장면과 닮아 있다. 교도소에서 나올 날을 기다리며,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마을 입구의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그가 원했던 것은 ‘돌아와도 좋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 조각, 누군가의 손이 직접 매달아 두었을 실체 있는 신호였다. 마침내 키 큰 참나무를 가득 덮은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을 마주했을 때, 그가 느꼈을 구원은 전화 목소리나 디지털의 매끄러운 문자 메시지로선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였을 것이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이 남긴 응답이자, 말이나 글보다 먼저 그에게 도착한 용서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지금의 우리는 화면에 남은 작은 표시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가늠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펄럭이던 천 조각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숫자나 문장이 아니라, 사물의 움직임 자체가 응답이던 시절이었다.

요즘은 실체 없는 약속들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조금씩 달라졌다. 순간을 경험하기보다 포착하는 데 급급하다. 콘서트 무대를 눈으로 보는 대신 화면으로 본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맛보기 전에 먼저 카메라를 들고 구도를 잡는다. 찬란한 여운을 남기며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서 서서도 그것을 액자에 가두느라 바쁘다. 그러다 정작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만다. 기록의 강박이 경험의 깊이를 대신한 셈이다.

그래서 나는 화면 밖으로 밀려난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손때 묻은 사진첩의 무게



는 결코 가볍지 않다. 추억 한 장마다 남은 손의 온기, 모서리가 말린 흔적, 어디선가 묻어 온 작은 얼룩들. 이 불완전한 흔적들 덕분에 사진은 아직 살아 있다. 그것들은 시간과 함께 색이 바래고, 우리와 같은 속도로 늙어간다.

모든 순간이 화보처럼 선명할 수는 없다. 때로는 초점이 어긋나고 색이 바래더라도, 그 흐릿한 틈새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머문다.

서랍 속 앨범을 다시 펼친다. 빛은 바랬지만, 그 안의 얼굴들은 여전히 나보다 오래 버틴 시간의 표정으로 남아 있다. 사진첩을 넘길 때마다 손끝에 닿는 이 낡은 감촉 앞에서야, 나는 비로소 알 것 같다. 선명함보다 오래 남은 것들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글 심선경 수필가

## 서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시민을 위한 열린 공연장, 예술인의 든든한 무대

# 낙동아트센터 송필석 초대관장

송필석 관장은 지난 8월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낙동아트센터 초대 관장으로 임명됐다. 1987년 부산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부산문화회관과 을숙도 문화회관 등에서 근무하며 부산의 예술문화 생태계를 꾸준히 다져온 문화예술 행정 전문가다. 서부산 예술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낙동아트센터가 그의 리더십 아래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기대가 모인다.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낙동아트센터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낙동아트센터는 단순히 하나의 공연장이 아니라, 서부산 지역의 문화 지형을 새롭게 그려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보며 늘 느꼈던 것은, 서부산에도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품격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니다.

그 첫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큰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단기간의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사명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낙동아트센터가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개관 페스티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특히 기대할 만한 올해 주요 공연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개관과 함께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은 ‘처음’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상징성과 완성도를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개관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우수 연주자들의 클래식, 발레, 오페라, 그리고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기획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유명 작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낙동강과 서부산이라는 공간이 지닌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해석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공연장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개관 페스티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개관 이후에도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해설이 있는 공연부터 애호가들을 위한 깊이 있는 레퍼토리까지, 관객의 다양한 눈높이를 고려한 기획을 균형 있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부산의 예술문화를 현장에서 지켜오셨습니다. 관장으로서 바라본 서부산은 어떤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 보시는지요.**

서부산은 오랫동안 산업과 생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문화적 잠재력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구와 가족 단위의 시민들

이 많고, 새로운 도시 공간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문화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낙동아트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공연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삶의 결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부산은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지역'을 넘어, 문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일상에서 경험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콘서트홀, 그리고 향후 개관할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공연장이 차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낙동아트센터만의 매력은 무엇이며,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싶으신가요.**

낙동아트센터의 가장 큰 매력은 '지역과의 거리감이 없는 클래식 전용홀'이라는 점입니다. 대형 랜드마크 공연장이 도시의 상징적 역할을 한다면, 낙동아트센터는 시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예술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서부산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끔 찾는 공연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에게는 편안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창작과 발표의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낙동아트센터는 '지역'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부산에는 뛰어난 실력과 개성을 가진 예술인들이 매우 많지만, 안정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기획의 불균형과 수도권 중심의 예술 유통 구조는 여전히 지역 예술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낙동아트센터는 지역 예술인을 단순히 초청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획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무대 제공과 협업 프로젝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 공연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낙동아트센터를 찾을 시민들과 부산 예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낙동아트센터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애호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예술인들께서는 이곳이 도전과 실험이 가능한 든든한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예술인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공연장, 그것이 낙동아트센터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_정리\_정혜주

‘연극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 부산연극협회 이정남 회장 재선, 부산 연극의 다음 10년을 말하다



부산연극협회 이정남 회장이 지난 12월 8일 부산에  
술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선출  
됐다. 재선에 성공한 그는 제24대 회장 임기에 이어 올  
해 1월부터 다시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이 회장은 출마의 변과 당선 소감을 통해 △창작 지원  
금 확대 및 레지던시 신설 △부산연극제 국제화 △회  
원 정책회의 정례화 △국제교류 확대 △연극 전용 공  
연장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  
웠다. 특히 그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민  
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협회의 모든 역량  
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단위가 아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기  
간이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날에도 그는 여전히 분  
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 회장이 깊이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는 부산연  
극협회의 ‘중추’이다. 그는 현재 협회의 구조를 설명  
하며 40~50대 연극인들의 부채를 문제로 꼽았다.

“40대가 공백입니다. 50대 초반까지도 멤버층이  
거의 없어요. 제가 8년을 일하면 지금의 30대 청년  
연극인들이 중심 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조

가 안정기에 들어서죠. 그들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부산 연극계에 특별한 해다. 대한민국연극제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연극제는 1983년 시작해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전국 연극 축제로 전국의 연극인과 연극 애호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상징적인 행사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연극제에 세 번째로 참여한다. 이전에는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맡았고, 이번에는 집행위원장으로 부산을 대표해 행사가 이끈다. 그는 이번 재선 역시 대한민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강한 바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현실적인 고민도 크다. 그는 연극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예산 부족과 지원 구조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숨기지 않았다.

“대한민국연극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작습니다. 또 연극은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편이라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하고, 그런 작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창작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만 이야기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부산연극제 역시 그가 꼽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올해로 44회를 맞은 부산연극제는 경연 중심의 행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축제의 구조화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지역 극단이 참여하고 부산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또한 부산연극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청년 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의 바람이다.

창작 생태계가 안정되면 다음 단계는 유통이다. 이 회장은 지역 극단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과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해외 진출의 물꼬를 텃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왜 공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다시 솟아올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통은 우리 작품을 해외에 알리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일방적인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작품도 부산에서 공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 지원과 함께 ‘연극 전용 극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용 극장은 관객을 모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연극 전용 극장 설립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올해 부산연극제는 봄·여름·겨울로 나뉘어 진행된다. 여름 시즌에는 대한민국연극제가 함께하며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가을에는 부산예술제가 이어져 사실상 사계절 내내 연극이 쉬 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극은 결국 아날로그입니다. 예술은 인간을 탐구하는 일 이기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연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극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정남 회장의 이 말에 인터뷰 현장은 마치 무대 위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연극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성실하게 일한 연극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부산연극협회가 튼튼한 기둥 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부산 연극의 시간은 여전히 그의 손에서 흐르고 있다.

글 인물사진 정혜주

#### 이정남

- 극단맥 대표
-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장
- 부산국제연극제 자문위원

여백으로  
작품세계를 채우다

서양화가  
김양묵



- 목우회 공모전 및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제9회 목우회 공모전 최고상 수상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임
-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 (사)한국미술협회 부산지회장 역임
- 제1회 BFAA 아트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역임
-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명예교수
- 부산미술협회 고문

우유수성유(牛飲水成乳), 사음수성독(蛇飲水成毒)이라는 말이 있다. 소는 물을 마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 독을 만든다는 뜻이다. 같은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소든 뱀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물을 소화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예술의 경지 또한 다르지 않다. 하나의 형식을 접하고도 그것을 자기 안에서 소화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드러낸다면, 과연 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 여기, 서양화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해 동양화와 같은 향내음을 풍기는 작품을 만들어온 화가가 있다. 김양묵 화백은 그런 예술가다.

### 나침반이 되어준 그림 한 점

김양묵 화백의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시다. 그가 유년기를 보낸 시절, 상주는 아직 '시'가 아닌 '군'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집안에 특별한 예술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일찍부터 그림에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중학교 시절, 미술 교사가 유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서양화라는 인식조차 없이 같은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면 그의 집안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가끔 대구로 나가 유화 재료를 구할 수 있었다. 미대를 다니던 두 명의 선배 역시 중요한 자극이 됐다. 선배들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며 조언을 듣는 과정 속에서, 그는 거의 독학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림을 이어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대구에서 관람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미술대전), 이른바 '국전'이었다. 전시를 본 뒤, 자신의 그림 역시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목표가 뚜렷해졌다. 고등학생이던 그는 국전 출품을 위해 홀로 서울행을 택했다. 유화로 그린 노인의 초상, 120호 대작을 짊어진 채였다. 서울에 도착하면 친인척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상주에서 김천까지 이동한 뒤 완행열차를 타고 밤새 서서 서울로 향해야 했다. 그렇게 도착한 서울에서 머물며, 그는 한 가지 갈증을 느꼈다. 상주에서는 미술 전공자를 찾기 어려



웠고, 이왕 서울까지 온 김에 자신의 그림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숙소를 나서 별다른 목적지 없이 걷던 중, 우연히 한 미술학원을 발견했다. 사정을 설명하자 학원 원장은 작품을 직접 가져와 보라고 했다. 다시 작품을 들고 찾았을 때, 원장은 자신의 전공과는 다르다며 서양화 전공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 인연으로 만난 이가 故 박철준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였다. 故 박철준 교수는 김양묵의 그림을 유심히 살핀 뒤, '더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미술 인생에 평생의 방향을 남긴 스승과의 만남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김양묵은 서울교육대학교의 故 박상옥 교수를 만나게 된다.

### 서양화의 거목을 만나다

故 박상옥 교수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연 3회 특선을 기록했으며, 1954년 제3회 국전에서는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국 서양화사의 거목이다. 김양묵은 국전에 참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상주에서 서울까지 홀로 올라온 자신의 이야기에 박상옥 교수가 크게 감명받았다고 회고한다. 박 교수는 그의 작품을 살핀 뒤, 조언과 함께 "훗날 서울로 대학에 오게 되면 꼭 찾아오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김양묵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에 진학하며 상경했고, 약속처럼 박상옥 교수를 찾았다. 비록 다른 학교 학생이었지만, 박 교수

는 연구실 한켠을 내어주며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렇게 김양묵은 서양화의 대가 곁에서 작업하며, 말보다 태도로 전해지는 가르침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 그러나 이 소중한 사제의 인연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김양묵이 군 복무 중이던 시기, 박상욱 교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스승을 곁에서 사사하던 당시에도 그 위대함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재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실감한다고 말한다. “조금만 더 곁에 머물며 배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답답한 회상에는 여전히 스승을 향한 존경과 그리움이 배어 있다. 지금도 작업을 이어가며, 닦고 싶은 지점과 끝내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를 함께 떠올린다고 조용히 덧붙였다.

### 여백으로 채우는 회화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김양묵은 서양화가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작업을 마주하는 순간, 장르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흐려진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완과 대나무, 넓게 숨 쉬는 여백은 서양화라기보다 동양화의 정서에 가깝게 읽힌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작업을 동양화로 규정하지 않는다. 유화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양화 재료를 쓰기도 하며, 때로는 한지 위에 유화를 얹는다. 형식은 고정되지 않고, 방향 또한 의식적으로 설정된 적이 없다. 회화가 동양적으로 읽히는 이유는 전략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경북 상주의 시골 마을에서 자라며 몸에 스민 감각, 창호지를 통과해 들어오던 빛, 한지의 질감, 잿물로 삶아낸 천의 은은한 색채가 이미 작업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양화라는 형식을 배우기 이전에 체득된 생활의 기억들이 화면에 자연스럽게 남는다. 그래서 서양화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화면에는 동양적인 호흡과 여백이 함께 자리한다.

여백은 그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다. 이는 단순히 화면을 비워두는 구성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다. 부산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텅 빈 작업실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운 감각이었고, 그 감각은 곧 화면으로 옮겨졌다. 작은 다완 하나를 위해 넓은 여백을 남기는 구성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존재하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이다. 비어 있는 공간에는 오히려 시간과 호흡이 축적된다. 여백이면서 동시에 채움의 상태가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감각을 잃어낸 국내외 여러 갤러리에서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전시 제안을 이어왔다. 다완과 백자를 주로 다루던 시기에는 정서가 맞닿아 있는 일본에서 특히 반응이 두드러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 교류로 확장됐다.

대나무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인다. 초기 작업에서 대나무는 수직으로 뻗어선 풍경이었다. 서양화적 구성 안에서 시도된 동양적 소재이자, 자연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재현이었다. 이후 대나무는 점차 변주된다. 눅혀진 형태, 먹 선에 가까운 선, 한지에 스며드는 재료를 통해 더 이상 재현의 대상이 아닌 사유의 통로가 된다. 숲이 아닌 한 마디의 대나무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순환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흙에서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흐름 역시 그 안에 스며 있다. 먹이 한지 위에 얹히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 듯, 그의 회화는 설명보다는 체화된 감각으로 보는 이에게 다가간다.

다완은 이러한 세계관이 잘 응축된 상징이다.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비워진 공간 속에 홀로 놓인 자화상에 가깝다. 젊은 시절 달항아리를 여러 차례 그렸지만, 이후 오랜 시간 화면에서 떠났다가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불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행이나 시장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스스로에게 필요해지는 순간에만 화면으로 호출한다. 비움과 채움, 서양과 동양, 형식과 감각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진다.



### 미술행정가이자 교육자

김양묵은 작가로서의 삶뿐 아니라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도 부산 미술계의 한 축을 이뤄왔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과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과 현장을 동시에 경험했다.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의 중심에는 언제나 '작업'이 있었다. 행정은 봉사의 영역이었고, 회화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본질이었다. 국제 미술 교류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은 태도에서 출발한다. '아세아 현대미술전'과 'BFAA 국제아트페어' 운영을 통해 지역 미술이 외부와 만나는 구조를 고민해 왔으며, 해외 교류 전시에서도 '국제화'라는 이름보다 작품 자체의 밀도와 태도를 먼저 이야기해 왔다. 좋은 작품 앞에서는 국적과 장르가 의미를 잃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특히 '제1회 BFAA 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역할은 의미가 컸다. 이미 존재하는 행사를 운영하는 것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요구한다. 그는 청년 작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전시의 필요성을 느꼈고, 당시 전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젊은 작가들을 위해 이 교류전을 추진했다. 국전을 꿈꾸며 홀로 서울로 향했던 자신의 경험을 개인의 서사로 남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해 확장하려는 태도가 겹쳐있다.

### 삶의 여백에서 마주하는 작업

현재의 김양묵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정년 이후,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하며 하나의 소재를 오래 붙들고 연구하듯 변주해 나간다.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에 머무르는 태도,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회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서두르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화면 앞에 머문다. 젊은 작가들을 향해서도 선부른 말을 꺼내지 않는다. '버려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조차 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지난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수많은 예술가의 시간을 지켜보며, 재능이 있음에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작업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그래서 대신 조용히 바라는 것은 하나다. 꾸준함. 한 우물을 오래 파는 시간이 결국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김양묵은 일본과의 국제 교류전을 준비 중이지만, 더 이상 전시만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그림을 그리고, 여백을 남기고, 그 빈 공간을 사유로 채울 뿐이다. 그 공백은 결박을 풀어낸 자유의 모습이며,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그의 회화가 끝내 도달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자유다. 그 자유는 다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나무가 되어 화폭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파도에게 · 2

변종환

끊임없이 다가와 부서리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화살의 기이하면  
 차라리 소멸하듯 한없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밀려가려니  
 푸른색 일기장에  
 생의 한 페이지를 밟아도  
 리우고 다시 쓰다가 끝내  
 신 아껴주는 어느  
 지독한 이 그림  
 영원한 동짓을 멈추지 않을  
 너, 절묘한 사랑이여.

작가노트 | 「파도에게」란 연작시 몇 편중에 가장 짧은 한 편을 골랐다.

척박한 암벽 사이에서도 작은 꽃꽃이 피듯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꽃을 피운다.

글\_변종환 (사)부산문인협회 교문, 시인

# RE: VIEW

- 영화**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당신은?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_ 김민우
- 연극** 현실 인식과 형식적 독창성의 조화  
'2025 부산연극 BEST 7' 선정 작품 \_ 김문홍
- 미술** 미술의 디지털 아카이빙: 가능성과 미래  
메타버스Metaverse 그리고 다원예술 그룹 [단잠] \_ 백근영

##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당신은?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2025년도는 격랑 속에 흔들리는 국제 사회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격렬하게 뒤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볼 영화가 없다’라는 불평은 사치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지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영화는 여전히 관객들에게 찾아와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작품은 앞서 말한 혼돈의 감각을 유감없이 체화한 영화다. ‘2025년의 영화로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 셈이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이하 <원 배틀>)는 공개 전후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매그놀리아>(1999), <핀치 드링크 러브>(2002), <더 위 월 비 블러드>(2007), <마스터>(2012), <팬텀 스펀드>(2017)와 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예술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만들어온 그가 1억 3천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920억 원)를 투입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도 그렇지만, 필름 작업 자체도 생소한 시대에 이미 사장되었다고 일컬어지는 비스타 비전 필름으로 전체를 촬영(공교롭게도 24년도 브래디 코벳의 <브루탈리스트>가 해당 필름으로 작업을 했다)한 점도 큰 화제가 되었다. 공개 이후에도 반응은 뜨겁다. 수많은 영화 매체에서 2025년 최고의 영화로 꼽을 뿐만 아니라 골든글로브 4관왕에 오르면서 현재 오스카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 말이다.

<원 배틀>을 흔히 알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그러

니가 화려한 스펙터클이나 액션을 가진 영화로 기대한다면 다소 김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흥미로운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완벽한 기승전결 구조를 가진 이야기도 아니다. 오히려 서사는 분산되어 있으며, 인물의 심리는 다소 복잡하다. 영화는 마치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듯 이야기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뜬금없는 타이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 흥행 성적이 실패인 것도 위와 같은 불만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바로 그런 점이야말로 <원 배틀>이 구현해 내고자 하는 세계에 걸맞은 방식이다. 지금부터 살펴해보도록 하자.

영화는 ‘혁명’ 혹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는 현장을 배경으로 삼지만, 정작 서사나 인물을 추동시키는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는지, 어떤 대의와 명분, 혹은 목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 대신 각자의 욕망이 자리를 차지한다. 극 초반의 주인공 퍼피디아(테아나 테일러)는 줄곧 ‘혁명’에 대해서 말하며 자신의 딸을 혁명의 방해물처럼 여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녀는 혁명의 결과물보다는 저항 그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녀는 폭발 직전의 현장에서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고, 록조(손 쉐)와 전복된 위치에서의 성관계를 자행한다. 중국에는 서사의 질서에도 따르지 않은 채 영화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무너져버린 이데올로기는 <원 배틀>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 록조 대령 역



시 마찬가지로. 그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주류 사회로 들어오려고 하면서도 흑인 여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모순적 존재다. 그는 성공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할지언정 투철한 신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밥 퍼거슨(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은 더하다. 극의 초반부, 그는 그룹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못 들은 채로 테러 행위에 가담해야 하는 장면이 나온다. 과연 그 묘사대로 밥은 혁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딸인 윌라(제이스 인퍼니티)가 태어나자 그는 곧바로 혁명과 멀어지며 전선을 일상으로 옮긴다. 영화에서 가장 웃기다고 할 수 있는 암구호 장면은 그런 밥의 처지를 가장 잘 보여 준다. 비록 '프렌치 75'의 전설적인 조직원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암구호 하나 기억하지 못해 찢궤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영화의 인물들은 이해할 수 없어야 하며, 서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데올로기가 무용해진 세상에서 혁명의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 전수될 수밖에 없다. 그건 다른 아닌 파도의 리듬

이다. 윌라의 '센세'인 세르지오(베니시오 델 토로)는 밥을 진정시키면서 '파도를 생각하며 침착하라'고 말한다. 파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하운동의 반복일 것이다. 그리고 <원 배틀>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파도의 운동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다. 파도의 리듬에서 인물들은 각자가 싸우거나 하는 대상이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반복된다. 그리고 영화는 정말로 파도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달려간다. 그야말로 파도의 형상을 뿔 도로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이 시퀀스를 위해 <원 배틀>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핵심적인 순간이다. 재미난 지점은 추격전에서 윌라를 쫓아가는 스톡모턴(토니 골드윈)은 자신이 윌라를 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윌라 역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암구호로만 피아식별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야말로 삶의 도처에서 있는지도 모를 적을 상대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목한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 모든 답을 뒤로 하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위력적인 건, 짜릿한 운동 이미지의 감각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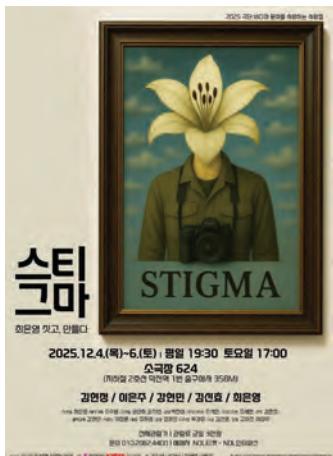


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때부터 관객 역시 약 20여 분 동안 실명한 사내처럼 앞을 볼 수 없게 되며, 암흑 속에서 오직 사내의 '대사'만을 들으며 그의 행위를 지켜보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의도적으로 설계된 하나의 윤리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베스트 2위 **극단 어머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최인훈 작, 전상배 연출, 110분, 공간소극장, 2025.3.20~27)는 시극에 가까운 최인훈의 문학적 알레고리를 시청각적 오브제로 적극 변주한 작품이다. 설화를 역설적으로 뒤집은 심청의 유랑은 외침의 수난을 거듭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은유적 알레고리로 상징한다. 연출은 이러한 관념성을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오브제로 형상화하며 은유하는 방식이 돋보인다.

베스트 3위 **부두연극단의 <어항속 물고기>**(원제 <벨기에 물고기>, 레오노르 콩피노 작, 이성규 연출, 100분, 액티스 소극장, 2025.11.13~15)는 부모를 잃은 13세 소녀와 어린 시절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온 48세 남자의 이야기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시종일관 인본주의적 시선으로 따스하게 그려낸다. 이 작품은 40년 남짓 자신의 연극적 신념과 철학을 오롯하게 유지해 온 원로 연출가의 치열한 연극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베스트 4위 **극단 바문사의 <스티그마>**(최은영 작·연출, 75분, 624 소극장, 2025.12.4~6)는 사물이나 현상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우리 시각이나 관점이 오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무대 위에 제시한다. 작품의 주제는 철학적 사변으로 은유적이며, 무대 위 연출 형식 또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다. 서사 중반부에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암전되는 장면을 경계로 뚜렷하게 나뉜다. 그 이전이 무용에 가까운 퍼포먼스라면, 이후는 연극이다. 사실 연극적 형식이기는 하나 대사가 없는 일종의 시적인 마임극에 더 가깝다. 작품에서 유일한 대사는 학예연구사(이은주 분)가 'Stigma'의 유래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서 전시된 작품을 설명하는 것뿐이다. <스타그마>는 신체 연기인 무용극과 음악, 그리고 연극적 서사가 작품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객에게 사변적인 철학적 사유를 제공하는, 지적인 연극이다.



베스트 5위 **극단 C의 <하얀 집>**(황지선 작·연출, 70분, 부산시민공원 백산홀, 2025.9.20.~21.)은 대사가 거의 없는 무언 신체극으로, 형식적으로는 무용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제로서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선명하다. 전쟁으로 인한 피폐한 상황에서 집을 찾아 떠도는 젊은이들의 유랑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념과 전쟁, 인종 갈등으로 인한 인간성의 위기를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총체극적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베스트 6위 **극단 따뜻한 사람의 <뚫단배>**(이민준 작, 허석민 연출, 75분, 6번 출구 소극장, 2025.9.5.~7.)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단막극적인 상황'의 극이다. 단막극이란 4~50분 내외의 극으로, 압전 없이 시종일관 긴장감 있는 서사로 극을 전개하다 마지막에 '반전'과 함께 극이 끝나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계 속에 내던져진 인간을 성찰하는 것이 목표다. 이 작품 역시 망망대해 위를 표류하는 뚫단배라는 한정된 공간과 극한 상황 속에 처한, 서로 신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인간을 성찰하는 단막극의 본질적 속성과 닮아있다.

작품 속에서 노비가 만든 '뗏목'과 동학군이 양반의 옷으로 만든 '뚫', 그리고 무대 후면 스크린에 투사된 망망대해의 '바다'는 각각 은유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극의 주제와 상황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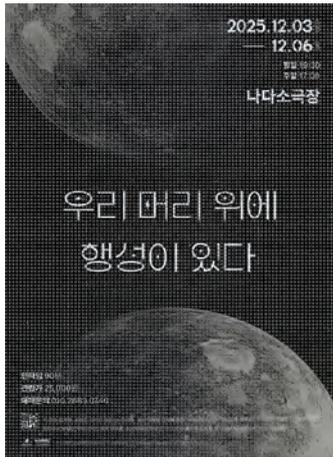
첫째, 노비가 만든 '뗏목'은 그 위에 타고 있는 세 인물의 신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한계 상황'을 은유하는 주요한 기제다. 물이라는 평온한 상황에서는 신분제가 주요한 사회적 질서로 작동하지만, '뗏목'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구원의 장치로 기능한다. 즉, 신분보다는 연대가 필요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동학군이 양반의 옷으로 만든 '뚫'은 순품으로 그들을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순기능과 이제는 양반의 신분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양반은 신분의 고집보다는 어리석은 민중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셋째, 무대 후면 스크린에 투사된 '망망대해'의 시각적 오브제는 동학군이 그들 두 사람에게 전한 '갑오개혁'(갑오경장)처럼 이제는 신분제가 무너졌으니 굳게 닫힌 사직의 문을 열어 새로운 문물과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종의 실용주의적 개혁을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베스트 7위 **극단 배우창고의 <우리 머리 위에 행성이 있다>**(김가영 작·연출, 90분, 나다소극장, 2025.12.3.~6.)는 비교적 문학적성과 연극성이 잘 어우러져 있는 편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가정법'이라는 한계 상황을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로 삼아, 사회 구성의 기초 단위인 어느 한 가족을 그 위에 올려놓고 구성원들의 본질적 특성을 관찰하려는 기발한 발상이다. 인간의 본질적 속성은 극한의 조건 속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소재와 주제를 창의적으로 잘 포착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연기 앙상블이다. 자칫 잘못하면 '행성 충돌'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작위적인 대소동이 일어날 법한데, 충돌이 임박한 현재 상황이나 그 전의 풍경이 호들갑스런 행동을 보이거나 비극적 영탄조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이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의도적인 침착한 행동으로 이 사태에 반응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난리법석을 피우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던 관객의 기대심리를 여지없이 배반한 일종의 연출의 강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출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가족의 평온한 모습을 통해, 관객이 시종일관 서사의 추이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방어적 의도를 갖는다. 각 인물의 언행은 연극적 과장 대신 평온한 모습으로 환치시켜 미세한 일상적 연기 패턴으로 설정된다. 즉 미시적인 연기 행태를 통해 방어법의 비연극적인 연기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품은 관객이 지닌 고정관념과 기대심리를 역이용하는 강조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5 부산연극 BEST 7' 선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연극 평론가의 공연 작품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가깝다. 공연 작품을 보는 평자의 시각이 연극에 대한 이념적 사고의 발현으로서의 주관적 견해로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예술관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즉, 올해의 작품 중에서 아카이브로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뜻인데, 그것 역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 미술의 디지털 아카이빙: 가능성과 미래

# 메타버스Metaverse 그리고 다원예술 그룹 [단점]

글\_백근영 한국화가

입체 예술과 뉴미디어를 연구하는 세 명의 작가 손몽주, 김문정, 이동재가 결성한 다원예술 그룹 [단점DANJAM]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 1층 XR테크랩에서 '슈퍼포지션SuperPosition'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본 전시는 설치미술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경험과 작품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빙의 방식을 함께 다룬다. 동시대 미술 이미지가 메타버스로 옮겨지고 다시 재현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 다원예술을 접목해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는 관객에게 현대미술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매체의 확장성과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 아카이브Archive를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

현대에 아카이브의 정의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의 의미를 지닌다. 다변화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어느 지점에서 다원예술 그룹 [단점DANJAM]은 기존 아카이브의 개념적 요소를 디지털 아카이빙 방식으로 전환, 예술 작품과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과정을 수렴한 새로운 의미의 미적 개념을 전시로 피력했다. 주제인 '슈퍼포지션SuperPosition'은 물리학적 용어로 두 개 이상의 파동이나 상태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고 합쳐진다는 '중첩의 원리'를 뜻하며, 작품 내 여러 요소의 결합과 중첩된 상태를 적용했다. 쇼케이스

에서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변환된 이미지들은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다채롭게 대상을 드러낸다. 기존의 미술 입체작품을 포함한 일정한 공간 속 설치된 작품은 조각과 건축적 규모가 가지고 있는 보관과 기록의 한계로 작가들에게 오랜 고민이었다. 대형 공간 작업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안점으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은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그렇기에 더욱 영구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현재까지 입체예술과 뉴미디어를 연구한 세 명의 작가가 각자의 작품세계에서 축적해 온 감각을 유기적으로 서로 다른 기술과 매체로 결합해 공간 속 새로운 가상과 현실, 또는 물질과 비물질의 넘나드는 공감각적 실험을 선보였다.

### 메타버스Metaverse 그리고 다원예술 그룹 [단점]

김문정 작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오리지널 판화 이미지를 기반으로, 불가산 프롬프트에서 발생하는 AI 이미지의 오역을 심미적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3D 공간에서 치환해 초현실적인 가상 환경을 구축했다. 이전부터 판화와 설치 작업을 통하여 내면의 결핍과 현대사회 속 인간이 가진 근원적 감정적 복원을 시각화하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균열과 여백'이 공존하는 작품은 일상적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속 긴장감을 적용하여 대중에게 이중



적 인상을 남겼다. 손몽주 작가는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아르크) 지원으로 3차원 아카이빙 즉, 공간 설계 및 미학적 요소를 디지털로 변형하고 장소성과 함께 기록한 작업을 선보였다. 실시간 3D 제작 도구이자 게임 엔진으로 알려진 언리얼을 통해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미지는 '수영로 밴드'를 주 매개체로 공간을 활용한 감각의 파동을 설치미술로 구현하며, 그만의 감각적 기억과 물리적 리듬 간의 충돌을 개념과 조형적으로 풀어냈다. 이동재 작가는 부산영상위원회의 광대역 3D 스캐너 기술을 통해 탄생한 '아보카도 프로젝트: 메타버스 부산'을 선보였다. 도시의 현실 풍경을 정밀하게 스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익숙한 부산 속 여러 모습을 전혀 새로운 시점과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아보카도 시리즈' 주제를 명상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단점의 파편들을 한 공간에서 표현하고 '조각적 꿈'의 형상을 작가적 시각으로 표현했다. 이들의 세부적 이미지는 차이가 있지만, 각 작품을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독특한 몰입감을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특히, 쇼케이스의 마지막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레지던시 공간 홍터아트센터 내외부를 3D 스캔 후 여기에 입주 작가로서 선보인 '표류로(漂流路)'라는 전시를 결합해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축해 선보이며 매체의 현장감을 높였다. 이어진 영상들에서 전통적인 서사와 연출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를 통하여 관람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 미술의 디지털 아카이빙 Archiving: 가능성과 미래

21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예술 창작의 개념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며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과 '메타버스'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전통예술 개념이 전제해 온 물질성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시점에서 예술 창작의 방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들이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에 근접했음을 시사한다. 이제 디지털 아카이빙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작품 일부이자 또 다른 창작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확장적 개념으로 전환됐다. 이전에 축적된 데이터는 반복적 접근과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원작의 고정성을 해체한다. 예술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구조화되며, 과거의 창작 행위는 현재와 미래의 창작으로 메타버스 또한 예술 창작의 범위를 공간·경험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된다. 이들의 선택과 행위는 작품의 형태와 의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순환적 구조 속에서 예술 창작은 단일한 사건이 아닌 지속적 생성 과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의 긍정적 부분과 함께 동시에 고민해야 할 점은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객관적 비판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지속적 과정을 거치며 더 견고하게 예술의 미래와 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박재홍 - 경상도 아가씨



— 제6화 —

## 「경상도 아가씨」와 40계단



피란가요의 대명사로 통하는 「경상도 아가씨」 레코드

부산의 대중가요 가운데는 이 지역의 장소를 노래한 것이 많다. 해운대와 태종대 그리고 용두산을 비롯한 명소에서부터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국제시장과 자갈치, 피란민의 상징어린 공간인 영도다리과 40계단, 바다를 낀 지역 특성상 부산항과 부두, 오륙도, 동백섬, 송도, 남포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도다리과 40계단은 피란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했다. 당시 부산으로 피란 왔던 음악인들은 이처럼 애환 어린 공간을 무대로 노래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실향민들의 애절한 이야기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엮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노래가 있다. 피란가요의 대명사 「경상도 아가씨」이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줘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 「경상도 아가씨」 가사 1절

이 노래는 역시 피란민 신세였던 작사가 손로원과 작곡가 이재호 그리고 가수 박재홍의 합작품이다. 더구나 이 노래의 탄생 계기를 알게 되면 더욱 마음이 쫘해진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50년대 초, 부산으로 피란 온 박재홍은 국제시장에 잡화 가게를 열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제시장에 큰불이 나면서 판자로 된 박 씨 가게가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다. 갑자기 발발한 화재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의의 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작사가 손로원 씨를 비롯한 지인들이 박 씨를 위로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마침 시간이 점심 때라 식사하러 간 곳이 40계단 근처에 있는 북국집이었다. 그런데 일행이 들어와 한참이 되었는데도 손로원 씨는 들어오지 않더라. 일행 중 한 명이 “손 형 빨리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보니 손 씨는 40계단에서 껌팔이 소녀와 개비담배를 팔던 소년을 몰끄러미 바라보며 계단 수를 세고 있더라고 했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40계단 층층대로 시작되는 「경상도 아가씨」의 노랫말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작사가인 김지평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박재홍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이야기이다. 여기서 그날 40계단에서 만난 껌팔이 소녀와 개비담배를 파는 소년은 노



1953년 말 화재로 폐허가 된 40계단 부근(부산광역시)

래 속 주인공의 밑그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랫말은 작곡가 이재호에게 주어졌고, 곡이 완성되자 이재호는 평소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던 박재홍에게 노래를 불러 줄 것을 부탁했다. 음반 제작은 임종수가 서구 남부민동에 세운 미도파레코드사가 맡았다. 당시는 녹음 스튜디오 하나 없던 시절이어서 노래 취입은 미군이 한국 군에 불하한 해군 함정(LCI)에서 힘겹게 이뤄졌다.<sup>1)</sup> 이처럼 어렵게 제작된 「경상도 아가씨」는 4분의 2박자로 이어지는 경쾌한 폴카리듬인데다 당시 사회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져 공전의 히트를 쳤다. 통상 1만 장이면 히트곡 반열에 들어가는데 미도파레코드사의 첫 작품인 이 노래는 무려 3만 장이나 팔려나가 대흥행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부산을 무대로 한 이 노래가 이토록 큰 인기를 얻었다면 제목도 ‘부산 아가씨’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경상도 아가씨’라 불려야 했는지 궁금하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6·25 당시 부산시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산하에 있었다. 이 때문에 1963년 독립 직할시가 될 때까지 부산이라는 명칭보다 경상남도 즉 경상이라는 명칭이

더 널리 사용되었다. 여기에 상대 여성이 경상도 말을 하는 아가씨였기에 출신지보다는 말투에 역점을 두고 ‘경상도 아가씨’로 붙였음이 농후해 보인다. 하지만 피란가요로서 맥을 같이하는 손인호가 불렀던 「함경도 사나이」와 연관 지어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노래는 1953년 「경상도 아가씨」보다 1년 앞서 발매가 되었고, 역시 노랫말은 ‘가요로 역사를 말한다’라는 불멸의 작사가 손로원이었다.

홍남부두 울며 찾던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내 자식 내 아내 잃고 나만 외로이  
한이 맺혀 설움에 맺혀 남한 땅에 왔건만  
부산항구 갈매기의 노래조차 슬프고나  
영도다리 난간에서 누구를 찾아보나

- 「함경도 사나이」 가사 1절

가사에서 본 것처럼 「함경도 사나이」는 함경도 홍남에서 부산으로 피란 온 한 사나이의 실향의 아픔을 그린 작사가 손로원의 피란가요 제1탄 작품이다. 이에 비해 피란가요 제

1953년 발발한 부산 국제시장 대화재 현장(국가기록원)



2탄이라 할 수 있는 「경상도 아가씨」는 1절에서 40계단에 앉아 슬피 우는 이북 피란민 청년에게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운 마음에 사연을 묻는 데서 시작된다. 2·3절은 타향 살이에 대한 아가씨의 위로와 나그네의 연정, 그래도 잊지 못할 향수를 그리고 있다. 이 두 가요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피란을 온 ‘함경도 사나이’와 피란민을 맞는 ‘경상도 아가씨’를 대비시켜서 실향민의 아픔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작사가의 기특한 착상이 돋보인다. 심지어 이들 노래가사에 구체적인 지명과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래에 구체성을 강화시키고 사실성을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예전부터 이 땅에는 ‘남남북녀’라는 말이 쉽게 회자되곤 했었다. 하지만, 이 두 노래에는 ‘남녀북남’의 인물이 설정되어 있다. 당시 북쪽에서 내려온 피란민 가운데는 유달리 남자가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가족 모두가 함께 피란길에 나서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게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피란민이 한꺼번에 탈출 러시가 되고 있어 우선 남편과 아들을 남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유는 북한군의 입영 때문이었다. 실제 이들은 영장을 받았으나 대부분이 입대하지 않고 기피 중인 청장년들이었다. 특히, 이러한 아들을 둔 부모들은 극성스럽게 자식이 먼저 남쪽으로 피란을 가도록 강요했다. 그러한 말 못 할 사연을 갖고 있었기에 북에서 내려온

남자들은 대부분이 제 나이를 몇 살 낮추거나 아니면 올려 말하곤 했다. 정확한 나이는 본인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픈 사연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상봉이었다. 남쪽에서 재혼한 남편이 60년 넘게 북에 홀로 두고 온 아내를 찾아 모처럼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히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TV화면을 통해 이걸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동적인 눈물을 보이면서도 왜 아내를 홀로 두고 남편만 내려왔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전쟁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외줄타기와 같아 항상 긴장과 불안이 상존하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불시에 발발한 6.25전쟁은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고 이산(離散)의 아픔을 안겨 주면서 강한 귀소본능(歸巢本能)을 싹트게 했다.

그러면 이 노래의 주무대인 40계단은 어떠한 곳이었기에 피란민의 애환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본래 40계단이 들어선 주변은 해변으로써 가파른 낭떠러지로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륙도에서 밀려오는 외양의 큰 파도가 이곳 해변을 깎아내려 절벽으로 만들어 놓았다. 1902년에서 1912년까지 일본인들은 2차례에 걸쳐 이곳 앞바다를 매축하는 큰 공사를 벌였고, 여기서 약 9만 평의 광활한 부지가 만들어졌다. 훗날 이곳에 부산항 제1·2부두를 비롯한 항만시설과 역, 우체국, 세관 등이 들어서면서 부산항의 중심축이 되었다. 행정구역상 오늘날 중구 중앙동 일대다. 바다를 매축하여 생긴 새로운 도심과 해변언덕 위의 주거지 간을 소통하기 위해 1910년을 전후하여 40계단이 만들어졌다. 이 계단이 시민의 통로로서 살갑게 다가선 것은 6·25전쟁 이후가 된다. 갑자기 피란민 유입으로 도시가 팽창되면서 북병산과 보수산 산비탈에 많은 판잣집이 들어서게 되고, 매축지인 중앙동은 부두와 부산역 등이 있어서 하역인부나 등짐인부, 노점상 등 생업의 터전이 된다. 여기에 현재 40계단에서 반달계단 사이 좁다란 도로는 부



두 쪽 약 300미터에 부산역과 마주하고 있어서 6·25전쟁 당시에는 구호물자 장터 역할도 하면서 야간에는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위한 유흥 공간인 텍사스거리였다. 얼마 후 부산역전 대화재로 부산역과 함께 화마로 사라지게 되면서 옮겨간 곳이 지금의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 곁이었다. 이처럼 40계단은 매축지 중앙동과 산비탈 주거지 그리고 국제시장 등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지름길이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유동인구가 넘쳐나 껌과 담배를 파는 소년·소녀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때로는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영도다리 못지않게 피란민의 애환이 깊은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40계단의 정서는 곧 지명이 들어가는 노래와 영화로 만들어져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면 40계단 이름이 들어간 노래와 영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최초의 노래는 「함경도 사나이」이다. 3절에 보면 “하루 중 일 부두 노동 땀방울을 흘리면서, 40계단 판잣집에 오늘도 우는구려”가 나온다. 노래 제목으로는 1954년 신세영의 「추억의 40계단」(작사 손석우, 작곡 토미)과 1965년 동명의 영화 주제곡으로 불렀던 최희준과 자니브라더스의 「무정의 40계단」(작사·작곡 박춘석)이 있다. 최근에는 이 고장의 원로 가수인 안규성이 2024년에 「40계단 오작교」(작사 안규성, 작곡 인동남)를 불러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에 비해 영화는 유감스럽게도 폭력과 연관 지어 나타난다. 신성일·장동휘·황정

순 주연의 「무정의 40계단」은 깡패들의 격투 장소였고, 지난 1999년 안성기 주연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는 첫 장면부터 마약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잔인한 살인극의 현장으로 나와 강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40계단이란 명칭은 계단이 40개였던 데서 붙여졌다. 본래 위치는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25미터에 자리하였다. 지난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 때 40계단 일대가 불탔고, 이후 복구 사업을 벌이면서 계단 폭을 약 1m 줄여 현 위치로 옮겨 놓았다. 현재 40계단에는 아코디언을 치는 흥상과 함께 「경상도 아가씨」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부산 중구청은 지난 2004년 4월 피란민과 부두노동자의 애환이 담겨 있는 40계단 일대를 문화거리로 조성하였고, 6·25 전쟁의 참상을 담은 ‘40계단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살려 매년 가을에 그 시절 먹거리를 체험하는 등 시민 참여형 ‘40계단문화축제’를 연다. 이 축제 때 다양한 노래가 불리지만 어디 「경상도 아가씨」만큼 분위기를 압도하는 노래는 없을 것이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 댄스홀은 한꺼번에 500여 명이 들어갈 정도로 비교적 큰 사교장으로서 당시 김광수악단이 연주를 했으며, 뒤에 월광키바레로 바뀌었다. 한편, 악단장이자 작곡가로 유명했던 최익봉 씨는 당시 아코디언 연주가로 이 노래 음반 취입에 직접 참가했다면서 남포동의 동해사무실을 빌려 가마니를 둘러싼 방음시설 속에 7인조 연주팀에 의해 녹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정보의 홍아, '인공지능AI의 등'에 확실히 올라타자

“11살 손녀(00)가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재목材木'이  
되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소망을 담은 동요  
1곡을 만들어 주고 싶어.”

2026년 1월 초, 병오년 새해 벽두에 필자는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든지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두드리는 곳이 챗GPT입니다. 이유는 어떤 주제라도 막힘없이 원하는 대답(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에게 챗GPT의 힘을 빌려 '의미 있는 선물'로 동요 한 곡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챗GPT는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1절-후렴-2절-후렴으로 된 노랫말과 함께 조성(調性)과 멜로디까지 붙인 혼성합창용 동요 한 곡을 척 내놓았어요. 전문 음악인은 아니지만 챗GPT가 가다듬어서 내놓은 노랫말과 내레이션, 조성(調性) 표기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챗GPT가 제시한 작품은 이렇습니다.

제목 : <○○이의 꿈>

\* 가사-코드 연결표

\* Key : C / 4/4 / 1마디 = 1코드

▲ 전주(4마디) : |C|G|C|G|

▲ 1절(8마디) : (C) 아-침-햇-살-교-실-창-에/ (C1) 살-짜  
인-사-하-면/ (Am) ○-○-이 책-을-떠-고/ (Em) 꿈-을  
배-워-가-요/ (F) 하-나-하-나-쌓-아-가-는/ (C) 작-은  
오-늘-들-이/ (Dm) 내-일-의-큰-희-망-으-로/ (G) 자-  
라-나-겠-지-요

▲ 후렴(8마디) : (C) ○-○-아 ○-○-아 밝-게-웃-으-  
며/ (G) 한-걸-음-한-걸-음-나-아-가-렘/ (Am) 건-강-  
한-몸-과-고-운-마-음-으-로/ (Em) 세-상-을-바-추-는/  
(F) 별-이-되-어/ (C) 별-이-되-어/ (Dm) 세-상-을-바-  
추-는/ (G) 별-이-되-어

▲ 간주(2마디) : |F|G|

▲ 2절(8마디, 1절과 동일) : (C) 친-구-손-을-잡-아-주-고/  
(G) 서-로-도-와-가-며/ (Am) 윽-은-길-을-선-택-하-  
는/ (Em) 용-기-를-배-워-요/ (F) 나-라-를-생-각-하-  
고/ (C) 세-계-를-꿈-으-며/ (Dm) 평-화-의-씨-앗-을  
심-는/ (G) 사-람-이-될-거-에-요

▲ 내레이션 반주(4마디, 가사 없음) |C|F|C|G|(여기  
서 할아버지 내레이션[“○○아, 할아버지는 네가 공부를  
잘하기보다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네가 웃  
으며 배우는 오늘이 이 나라의 내일이 되고 세상을 평화  
롭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될 거야.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  
다.”])

▲ 마지막 후렴(12마디) : (C) ○-○-아 ○-○-아 꿈-을  
카-워-라/ (G) 배-움-으-로 세-상-을-밝-하-렘/ (Am)  
오-늘-의-너-를-믿-고-가-면/ (Em) 내-일-은-더-빛-날/  
(F) 거-야/ (C) 거-야/ (F) 내-일-은-더-빛-날/ (C) 거-야

정말 놀랍죠? 챗GPT는 우선 필자의 마음에 쏙 드는 노랫  
말을 제시했어요. “책을 펴고, 꿈을 배우며, 하나씩 오늘을  
쌓아서, 내일의 희망으로 자라라.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서  
둘지도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서, 건강하고 고운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어라. 친구 손을 잡고 함께 옳은 길을  
가는 용기를 배워서,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품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꿈을 키우고 배워서 세상  
을 밝혀야지. 그러려면 오늘의 너를 믿고 힘차게 나아가면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챗GPT는 순식간에  
11살 손녀가 밝게 자라서 사회와 국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동요  
속에 고스란히 녹여 주는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조  
성<sup>調性</sup>과 간주, 내레이션<sup>Narration</sup>까지 붙여주었고, 추가 질문  
들을 통해 마디별 가사에 도-레-미 등 멜로디와 숫자악보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조금만 보태면 학예회 때 동요  
신곡<sup>新曲</sup>으로 발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네요.

음악에는 문외한이지만 챗GPT 덕분에 금방 멋진 동요 한  
곡을 손에 쥔 필자는 “지금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이, 챗GPT가 대세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AI를 모르면 뒤처지고, AI를 알면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점도 뼈저리게 느껴졌죠. 따라서 말  
로만 듣던 AI와 챗GPT의 현주소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료를 뒤진 끝에 “AI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고  
위험 요소도 없지는 않지만, AI를 엄청난 ‘지적<sup>知的</sup> 동반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AI에 접근하자”라는 나름  
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AI 강좌를  
듣고, 서점에 달려가서 AI 관련 책도 샀습니다. 40여 년 가  
까이 언론계에 있으면서 세상사의 흐름을 지켜봐 온 필자의  
뇌리엔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IT 강국

이라는 외부의 칭찬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AI의 등에 짊어지게, 확실히 올라타야 한다.' AI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I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3년 워런 맥컬록(Warren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Pitts)가 인간 뇌의 뉴런(Neuron)을 수학적 모델링을 한 것이 인공 신경망의 시초입니다. 1940~50년대 전자식 컴퓨터 등장과 함께 앨런 튜링(Alan Turing)이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면서 현대적 AI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했고, 1960~70년대에는 논리·탐색·추론을 이용한 기호주의 AI, 규칙 기반 문제 해결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산 자원과 데이터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첫 번째 'AI 겨울'이 찾아옵니다. 1980년대 들어 특정 분야 전문가 지식을 '규칙'으로 넣은 전문가 시스템(의료 진단, 금융 등)이 상용화되며 AI가 한 차례 봄을 맞았으나, 유지·확장이 어려워 다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1990~2000년대 초, 통계적 머신 러닝과 패턴 인식, 인터넷 사용에 따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컴퓨팅 파워의 향상으로 음성 인식·스팸 필터·추천 시스템 등 실용적 AI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딥러닝과 빅데이터, GPU(Graphic Processing Unit) 기반 연산이 결합하며 이미지 인식·자연어 처리 정확도가 급상승했고, 2016년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프로기사(한국 이세돌)를 이기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딥러닝 시대의 AI'가 대중적으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거대 언어 모델(LLM)'과 '생성형(Generative) AI'가 등장해 챗봇·코드 생성·이미지·음악·영상 생성 등 창작과 지

식 노동 영역까지 AI가 파고드는 등 AI 활용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동원한 챗GPT 역시 생성형 AI입니다.

AI를 이해하려면 'AI 전문 용어'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AI(인공지능)'는 인간의 생각이나 학습 능력을 컴퓨터가 흉내 내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챗GPT'는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약한 인공지능)'는 한 가지 좁은 분야의 업무만 잘하도록 설계된 AI를 말합니다.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는 인간처럼 거의 모든 지적(知的)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가상의 AI를 말합니다. 아직 이런 AI는 존재하지 않으나 AI 연구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AGI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ASI(Artificial Superintelligence, 인공지능 초지능)'는 인간의 모든 지능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상의 AI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천재도 따라갈 수 없는 ASI가 등장한다면 인간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지 모릅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하고,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 학습)'이란 기계 학습의 한 종류인데 뇌신경을 본뜬 다층 구조의 인공 신경망을 활용, 스스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은 딥러닝을 구현하는 다층 구조의 알고리즘 모델이고, '훈련(Training)'은 AI 모델에게 예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 '인퍼런스(Inference, 추론)'는 훈련된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여 새롭게 입력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학습 시에 정답이 달린 데이터(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AI를 지도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과 정답 없는 데이터로 AI가 스스로 구조나 패턴을 발견하도록 훈련하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 행동에 따른 보상과 벌점을 AI에 주어 학습시키는 방법인 '강화 학습(Reinforcement L.)', 한 번 훈련된 AI 모델의 지식을 다른 유사한 과제에 응용하는 기법인 '전이 학습(Transfer L.)'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프롬프트(Prompt, AI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주어지는 입력 또는 지시문)'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AI 시스템을 말하고, 이 AI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용자가 창작자처럼 무<sup>無</sup>에서 유<sup>有</sup>를 만들어 내는 셈이 됩니다.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인터넷 텍스트 등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모델입니다. '생성적 사전 학습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는 OpenAI사가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계열의 이름이고,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는 사용자를 대신해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내는 현상인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과 AI 개발과 활용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가치인 'AI 윤리(AI Ethics)'와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모든 노력을 일컫는 'AI 안전(AI Safty)', AI 모델이 데이터나 알고리즘상의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관점에 치우친 오류를 보이는 현상인 'AI 편향(AI Bias)', AI 모델이 부지불식간에 내뿜는 공격적이거나 해로운 내용인 'AI 독성(AI Toxicity)'이란 용어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전문 용어가 있지만, 거론한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AI 세계에 쉽게 발을 들여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워낙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인간이 AI에 짓눌려 움짱달짝 못 하는 사태에까지 이를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AI를 악용하는 자들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AGI(범용 인공지능)나 ASI(인공지능 초지능)에 조종되어 핵전쟁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필자가 챗GPT에 "AI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나?"라고 물어봤는데,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말을 하지만, AI는 '이해하지 못하고' 방대한 학습을 통해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뿐"이라고. AI는 또 이런 의미심장한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AI의 미래는 공학(工學)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윤리·민주주의의 문제이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AI를 잘 쓰는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체한다. AI의 역사는 지능의 탄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질문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결국 인간이 다루는 AI이니 AI를 지나치게 겁낼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 개인과 사회, 국가가 AI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의 삶과 연결된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고, AI의 특성상 세상에 드러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거의 100%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AI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철학적·윤리적 잣대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승자(勝者)'가 될지, '패자(敗者)'가 될지 기로에 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Now)',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Here)' AI의 등에 확실히 올라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저널리스트

## 박정은 우리마루 대표 변호사, 부산예술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사)부산예술후원회 2026년 제5차 정기총회 개최

### 1. 8.(목) 오전 11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법무법인 우리마루 박정은 대표 변호사가 (사)부산예술후원회(회장 김정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정은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사)부산예술후원회 제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부산예술후원회 김정기(경동건설 대표) 회장은 “지역 예술계에 단비와 같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풍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제5차 정기총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안으로 ‘팬텀스타워즈’와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사업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례 기획으로 개최되는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부산 지역 곳곳에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부산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팬텀스타워즈’ 사업은 수익 창출을 통해 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상생 모델로 확인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정광현 이사가 “부산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과 예술의 융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예술 발전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부산예술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정기 회장과 함께 강익구(부산영사단 대표) 고문, 박원범(전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문, 정광현(주)코리아오션텍 대표 이사, 조한제(전 KBS부산방송총국장) 정책위원장, 박근서(성현회계법인 대표) 감사가 참석했다. 또 오수연 회장을 비롯해, 김민숙 수석부회장, 권성은 부회장, 남선주 부산무용협회장, 안규성 부산연예협회장 등 부산예총 회장단도 함께했다.



## 이혜정 부산시 문화예술과장, 부산예총 방문 간담회

### 1. 13.(화) 부산예술회관 한올집



이혜정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1월 13일 부산예술회관을 방문해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과 단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 예술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은 '부산예술인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비롯해 공연장·전시장 등 예술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전달했다. 김인숙 수석부회장은 부산시의 새로운 예술문화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혜정 문화예술과장은 부산 내 전시장 건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애로와 바람을 면밀히 살피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연극협회 정기총회, 부산연극상 첫 해외 수상작 탄생

### 1. 21.(수)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구민주 (배우)

김기영 (희곡)

최용혁 (연출)

부산연극협회(회장 이정남) 정기총회가 1월 2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20회 부산연극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제20회 부산연극상 해외 수상작으로는 이스라엘 극단 베이트 레신 씨어터의 <안티고네>가 선정됐다.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고전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지난해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해외 작품이 부산연극상을 수상한 것은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선정은 부산연극상의 외연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부산연극상 대표 부문인 '올해의 연극인상'에는 구민주(배우), 김기영(희곡), 최용혁(연출)이 선정됐다. '젊은 연극인상'은 배우 김아름과 이설에게

돌아갔으며, '예인 연극상'은 부산 최고령 현역 배우 박찬영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서승우 영화의전당 예술본부장이 받았다. 개인상(올해의 연극인상, 젊은 연극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 부산예총 사무국 워크숍 개최

### 1. 7.(수) 회동수원지 일대

부산예총 사무국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예총을 비롯해 부산 건축가회, 부산국악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등에서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협회 간 교류 활성화와 부산예총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체력 증진을 위한 회동수원지 둘레길 걷기를 시작으로, 만찬과 함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등 자유로운 소통과 친목을 다지는 유쾌한 자리로 이어졌다. 김경중 부산예총 사무처장은 “앞으로 부산예총 사무국의 단합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예총 사무국은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기획·개최하며 부산 예술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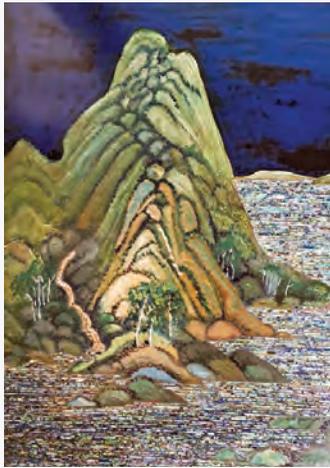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원)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i>마감!</i>	500,000
· 표4 (뒷표지) <i>마감!</i>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최말에 옷칠화전  
치유의 빛**

2025. 12. 26.(금) ~ 31.(수)  
갤러리휴

최말에 작가는 나무판을 캔버스 삼아 옷칠의 색과 질감을 회화의 언어로 재 해석하며,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를 화면 위에 차분히 풀어낸다. 토기와 인물, 나무 등 삶의 근원적인 대상들은 옷칠 특유의 깊이 있는 색감과 흙의 물성을 머금은 채 작품 속에 자리한다. 사포질과 중첩의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남겨진 흔적들은 작가의 손길을 통해 하나의 조형 요소로 완성되며, 우연성과 필연성이 공존하는 옷칠 작업의 매력을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은 작품마다 서로 다른 표정과 리듬을 만들어내며, 화면에 고유한 시간성과 감정을 축적한다. 전시 제목처럼 작품 속 빛은 화려함보다 조용한 치유의 감각으로 다가온다.

문의 010-3096-1731



**더 필하모닉 브라스**

2. 3.(화)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라스 앙상블 [더 필하모닉]이 부산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트럼펫·호른·트롬본·튜바 등 금관악기가 지닌 풍부한 음색과 강렬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무대로, 클래식 음악 특유의 정제미와 화려함을 동시에 전한다.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와 함께 〈해리포터〉, 〈인디애나 존스〉, 〈스타워즈〉 등 익숙한 영화 음악도 선보이며, 금관악기가 만들어내는 사운드의 폭을 한층 넓힌다. 금관악기의 매력을 집약한 이번 무대는 클래식 애호가든 물론 새로운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은 관객에게도 인상적인 공연으로 남을 것이다.

문의 051)640-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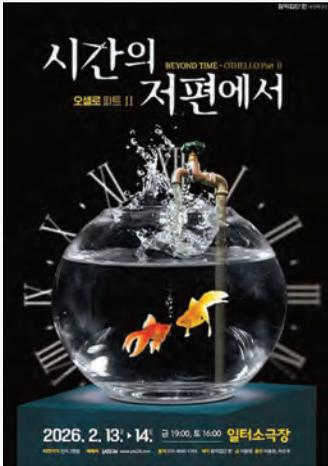


**양수경 개인전  
자유를 향한 명상**

2. 4.(수) ~ 10.(화)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에서 양수경 작가의 개인전 '자유를 향한 명상'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예술을 통해 인간 존재와 자유에 대한 사유를 풀어낸 작업들을 선보인다. 회화·사진·누드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자유'를 공통된 키워드로 삼아,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드러낸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어지는 회화는 무념과 몰입의 흔적을 담고, 사진과 누드 드로잉은 사회적 규제와 감정의 복합성을 해체된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한 사유의 과정이자, 자유를 향한 작가의 명상적 여정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10-2846-4437



**시간의 저편에서:  
Othello Part II**

2. 13.(금) 오후 7시 / 14.(토) 오후 4시  
일터소극장

창작집단 한의 연극 〈시간의 저편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이후의 서사를 출발점으로, 사랑과 두려움, 오해와 침묵이 남긴 흔적을 동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균열과 감정의 잔상을 따라가며, 인간 내면에 자리한 불안과 욕망을 밀도 있게 응시한다. 무대 위에서는 과거와 현재, 기억과 현실이 교차하며 인물들의 선택이 남긴 결과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익숙한 고전을 신선하게 확장한 이번 작품은 비극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문의 010-4846-1765



**변대용 조각전  
너의 의미 The Meaning of You**

2025. 12. 26.(금) ~ 2026. 2. 28.(토)  
갤러리조이

변대용의 조각전 '너의 의미'가 갤러리조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관계'의 문제를 동물 형상의 조각으로 풀어낸다. 말없이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곰과 강아지의 형상은 침묵 속에서 관람자의 기억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불러낸다. 작품 속 '너'는 특정한 타인이자 과거의 자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작품 앞에 선 관람자로 확장된다. 단순하고 친숙한 외형 속에 담긴 조용한 질문들은 조각을 하나의 거울처럼 작동하게 한다. 변대용의 이번 전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나 자신에게로 되 돌아오는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051)746-5030



**뱅크시 사진전  
'Who is Banksy'  
by Martinbull**

1. 9.(금) ~ 3. 29.(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 Banksy는 스텐실 기법을 통해 부패와 불평등, 전쟁과 환경 문제 등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날카롭게 드러내 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을 오랜 시간 기록해 온 사진작가 마틴 불 Martin Bull의 시선으로, 거리와 벽 위에 남겨진 뱅크시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조명한다. 공공장소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사진 매체를 통해 다시 읽히며,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되짚게 한다. 도발적이면서도 어둡지만은 않은 이미지들은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강한 여운을 남긴다. 거리 예술이 지닌 힘과 기록의 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전시다.

문의 1588-2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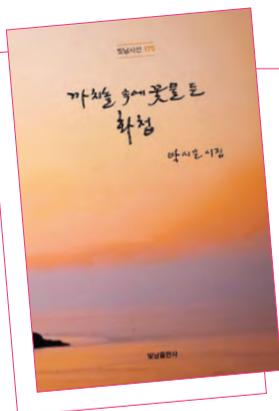
**생명의 랩소디** 윤유점 / 현대시학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써 내려간 윤유점 시인의 시집 『생명의 랩소디』는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시인의 섬세한 시선을 담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사유는 이 시집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한 주제다. 표제작 「생명의 랩소디」에서는 자작나무에 깃든 순혈 황금가지, 순환의 섬 갯벌, 바람결 쓸여가는 죽음의 섬 사막까지 거대한 생태계의 장면 장면들이 리듬감 있게 펼쳐진다. 「대나무 숲이 사라졌다」, 「떨켜 2」와 같은 작품은 소멸과 상실의 풍경 속에서도 존재의 깊이를 묻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생명들에게도 시인의 시선이 머문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은 시인의 섬세한 시선과 상상력을 통해 독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하늘의 비밀** 김영호 / 호밀밭

“어린이를 생각하며 시를 쓰는 마음으로 셔터를 누른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 따뜻한 시선과 순간의 감정을 담은 사진이 어우러진다. 김영호 작가는 삶의 단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감사, 일상의 감동을 잔잔한 언어와 이미지로 풀어낸다. 표제작 「하늘의 비밀」은 ‘누구든지 속마음을 열면/보여요/사랑이 들어와요/눈으로는 못 찾는 오묘한 진리’라는 구절처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닿을 수 있는 진심에 대한 성찰을 전한다. 옆에 자리한 두 개의 창문이 있는 지붕 사진은 그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이 디카시집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일상 속 숨어 있는 따뜻한 감정을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까치늘 속에 꽃물 든 화첩** 박시은 / 빛남출판사

박시은 시인의 시집 『까치늘 속에 꽃물 든 화첩』은 자연과 일상, 내면의 풍경을 사색적으로 그려낸 4부 구성으로, 삶의 단면들을 따뜻하고 섬세한 언어로 담아냈다. 표제작 「까치늘 속에 꽃물 든 화첩」에서는 찰나의 아름다움 속에 스민 아픔과 희망을 ‘꽃물’이라는 이미지에 실어, 흔들림 속에서도 피어나는 삶의 의지를 시적으로 풀어낸다. 시인은 “내가 쓴 시가 나를 위로한다”고 말하며,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지탱해 준 ‘화첩’ 같은 시들을 독자와 나눈다. 교사와 서예인, 캘리그래피 강사로서의 다채로운 이력은 시의 감수성에 깊이를 더하고, 독자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 시집은 조용히 곁에 머물며, 삶이 흔들릴 때 다독여 줄 수 있는 한 권의 화첩이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문화의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Play on Busan  
문화공연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